



다사리문화기획학교

2014 ~ 2017

DASARI SCHOOL

다사리문화기획학교 2014 ~ 2017

기간

2014년 9월 ~ 2017년 12월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여러 곳곳의 현장

멘토

김월식, 강정석, 이채관, 임재춘, 주성진

총괄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기획

김월식

운영

황지예

편집

고미랑, 신성은, 김혜진, 박지수

디자인 및 일러스트

서울로

도움

김지연, 안경화

발행인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 2017 경기문화재단

본 책은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SARI SCHOOL

다사리 벗들에게	김종길	4
내 삶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문화기획학교	김월식	6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시작		10
강의 리뷰		30
워크숍 ∼ 몸의 기술		52
프로젝트 기획		66
멘토의 말		140
다사리와 다사리 이후 ∼ 참여자 후기		155

다사리 벗들에게

김종길

다사리문화학교 첫 샘

現 문화사업팀장

저에게는 늘 곁에 두고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다석 류영모님의 책이죠.
한 권이라고는 했으나 사실은 그분의 여러 책들이에요. 그분의 제자였던
박영호님이 그분의 말씀을 갈무리해서 펴낸 책들이죠. 그분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다석일지’(영인본 전4권)가 전부예요. 그분의 일기는 ‘하루때문’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왜 그랬을까요?

“류영모는 이미 스물여덟 살에, 우리가 말하는 일생이라는 것도
70년이나 80년, 90년이 아니라 하루인 것을 알았다. 오늘을 잃으면
일생을 잃게 되고 오늘을 잡으면 일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일일생주의(一日一生主義)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일생도 하루라는 과정이 이어져 일생이라는 탐이 완성되는 것이다.
헛되게 보낸 하루라 하여 우리는 일생에서 그 하루를 오려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오늘 살이다.”

《다석 류영모》, 133쪽

하루, 그래요 저는 그 하루가 참 삶의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정세훈님의 〈몸의 중심〉이라는 시집을 읽다가 “자잘한 물무늬 같은
삶의 곁이 빠져 있다.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곁까지 얹혀야 실은 가능한
것인데”라는 문구를 보았어요. 시인의 시를 평하는 정우영님의 글에 있던
글귀였는데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인연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잘한 물무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 말에 ‘하루’가
있다고 봐요. 하루하루의 인연이 쌓여야 한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될 터니까요.

인문(人文)을 ‘사람의 무늬’라 해요. 그럼 문화(文化)는 무엇일까요? 쉽게 풀면
‘무늬 되기’예요. 그러니 무늬는 사람살이의 곁이겠죠.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진보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라고 하더군요. 사진의 의미보다 사람살이의 걸이라는, 무늬라는 말이 더 다가오지 않나요?

문화도 그렇고, 문화기획도 그렇고, 저는 하루하루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기획’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테니까 말예요. 과정이 바로 ‘인연 쌓기’가 아닐까요? 인연을 쌓아가는 수없이 많은 결과 무늬가 문화를 문화답게 만드는 씨알일 거예요. 이 책은 그 과정들의 낱낱을 기록한 것이예요. 처음 다사리문화학교를 열 때, 경기문화재단 2층의 빈 공간에서 우리는 첫 인연을 쌓았어요. 출발은 참으로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의 물무늬는 이제 잔잔한 파도가 된 듯해요. 다사리문화기획학교로 이름도 좀 더 분명하게 했고, 경기상상캠퍼스 생활동 3층에 멋진 공간도 만들었잖아요.

벗님은 ‘언님’이라고도 해요. 어진님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진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무늬’를 만드는 곳에서 만나기로 해요.

내 삶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문화기획학교

김월식

다사리문화기획학교 교장
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지동의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2017년 12월 00일 아침은 근래 드물게 상쾌하다. 며칠 동안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지동 전체를 허물고 정비하는 소음과 철거로 발생한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했었는데 초겨울 추위를 재촉하는 간밤의 긴 비 때문에 날씨는 조금 추워졌지만 며칠 동안의 미세먼지와 공사의 분진들이 다 쓸려내려 갔다. 게다가 오늘은 겨울 특유의 새벽 공기가 코 끝을 때리며 째하고 맑은 정신을 주고, 슬며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차고 신선한데 그 와중에 청명한 겨울 아침의 햇빛이 그 대기 속을 뚫고 적당히 청량한 접촉을 해주는 이런 아침은 새삼 행복하다. 작업실과 마주한 원미용실은 이른 아침인데도 마을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로 하루를 시작한다. 동네의 소통은 주로 이런 방식이다. 간밤의 안녕과 화성 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웃을 걱정하는 미용실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동의 심포지엄이다. 문제 제기와 대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발전과 성장에 대비되는 개인의 행복권에 대한 의견도 공유된다. 뒷집 할머니는 습관처럼 쓰게기 더미를 해체 하며 동네 욕을 늘어놓는다. 혼자 말처럼 욕을 하는 할머니의 손에는 조선족과 이주노동자들이 검정색 비닐에 한꺼번에 묶어서 버린 쓰레기들이 재분리 되고 있다. 몇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거둬되는 아침 풍경에 할머니의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는 동장의 표창장정도로는 격려될 수 없는 마을에 대한 애착이 숨어 있다. 건물 철거와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요즘은 쉬고 있는 세인상사의 형님은 이런 뒷집 할머니를 아들처럼 섬긴다. 할머니에게 가루커피 한잔을 타다 드리면서 동네 욕을 함께 하면서도 이내 내 작업실로 들어와서는 할머니를 이해하라고 오지랖을 뻐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욕하는 애정이 진짜 애정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냄새나는 쓰레기더미를 매일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폐지 수거하는 지역 노인들을 위해 정갈하게 모아두는 할머니의 선행을

육 몇 마디가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즈음 40년을 하루 같이 수타를 치는
 신흥원 사장님의 밀가루 반죽 소리가 들려 온다. 40년을 지동에서 테이블
 2개의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신 사장님의 수타 소리는 농익은 리듬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소리처럼 텐션과 밀도가 있다. 게다가 맛은 또 얼마나
 좋은가? 씹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쫄깃한 면발이라는 것이 면요리에 대명사라면 부드러운 면발은 신흥원만의
 독립적인 정체성이다. 해장국보다 해장이 잘 되는 자장면이라는 게 지동에는
 존재한다. 자장면에 관한한 사장님은 최고의 면발 연금술사이다. 오늘 아침도
 수타 소리가 지동의 골목을 묵직하게 가르고 있다. 나도 이제 슬슬 하루를
 시작한다. 습관처럼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방송 특유의 철지난 음악이
 흐른다. 사고의 채널은 당연하게도 음악을 통해 과거로 흘러간다. 또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지동의 아침 풍경과 라디오의 음악은
 지동을 근대의 풍경으로 열려 놓는다. 내 작업실은 30년간 점방으로 운영되던
 현대지동슈퍼마켓자리이고 작업실 옆집은 지금은 용도 폐기되어 굴뚝만 남아
 있는 서울목욕탕자리이다. 오랜 시간 지동 사람들은 지동이 서울 같은 도시화와
 동시대 서울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욕망과 회망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짧은 시간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로컬의
 욕망은 혹은 종착점은 편리와 발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쓸쓸하게 간판만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현대의 주변에는 미용실이,
 중국음식점이 철거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는 보상만을 기다리는 할머니 몇
 분과 예술가 몇 그룹이 이웃해서 살고 있다. 마침 커피포트에 내려놓은 커피향이
 코를 자극한다. 투박한 찻잔을 집어 들고 커피를 따른다. 커피의 따뜻한 온도가
 잔을 통해 손에 전해진다. 이래저래 미소가 번지는 아침이다.

다사리라는 영토에서 성장하기

다사리에서 보낸 2년을 돌아 본다. 문화 기획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날 것
 같은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과 삶에 대한 고민을 실천하다 보니 어울리지 않게도
 문화 기획 학교의 교장이 되는 망극함을 갖게 되고, 과거 예술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철 없이 뛰어 다녔던 다양한 현장의 수많은 실수들을 반추하면서
 다사리 참여자들을 위해 적어본 일종의 반성문이 **지동의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이 글을 쓴 즈음부터는 선생으로써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다스리고, 또한 예술가으로써 고민한 예술과 삶의 문제를 실천과 수행의 견고한 밑도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 예술을 한다는 것, 문화 기획을 한다는 것은 모두 자기 삶의 내면과 깊게 마주하고 나의 모습으로 세상과 겨루는 일종의 싸움이 되기도 한다. 내 삶을 관찰하고 사유하며 변화를 위해 실천하고, 그렇게 잡힌 굳은살과 맺집은 삶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장인의 몸과 태도를 만들어 준다. 무릇 장인의 태도라는 것이 문화기획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시대에서 문화와 기획을 묶어 소비하는 방식인 기능적이고 효용적인 선택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장인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것은 자기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장인은 결과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타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세워 놓은 기준으로 결과를 판단한다. 남 다른 자기 과정과 결과를 판단 하는 자기 기준은 장인을 오랜 시간 자기의 일에 전념하게 하고 자기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나는 다사리의 모든 참여자들이 문화 기획자의 삶을 사는데 있어 자신의 언어를 만들고,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장인과 같은 흔들림 없는 자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늘 기대한다. 시작이 어떠했던, 어떤 경로로 다사리에 연루 되었더라도 다사리라는 영토에 머무는 시간에는 늘 잘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호기심과 질문을 키우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구길 기대한다. 결국 문화 기획자란 성찰과 실천을 통해 나를 바꾸는 경험과 학습으로부터 조금씩 성장한다.

지동의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은 관찰과 읽기, 생각을 만드는 경험이다. 이 경험은 오롯이 내 경험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동네와 지역에 대한 나의 감각을 자극한다. 이 아침 풍경 10분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추함이 있으며, 씩씩함이 존재하고 미소를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 귀 기울이게도 하기도 하고 변화를 감지하기도 하며, 또 삶을 움직여 변화의 마음을 갖게도 한다. 지동의 아침은 지역 안에서 늘 나와 지역의 관계, 지역적 삶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만들게 하고, 결국 지동에 대한 총체적인 철학을 만들기도 한다. 때문에 지동은 늘 내가 하는 예술의 영감이 되며, 틀이 되기도 하고 작업의 필드가 되기도 한다. 문화 기획이란 이름을 붙이기에도 새삼스러운 이 사는 이야기는 대체로 지동의

아침 10분 동안의 관찰과 사색에서 시작된다. 고백하자면 결국 나에게 예술과 문화기획은 동네의 아침 10분과 그 풍경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 10분의 경험은 나를 작가, 커뮤니티 아티스트, 문화예술교육자, 문화기획 학교의 교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고작 아침 풍경을 사유하고 촌음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면서 설계 했을 뿐인데, 생각해보면 이 실천으로 두꺼워진 경험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나의 경험과 힘이 된 셈이다. 이 멀쩡한 경험이 내가 다사리에서 만난 참여자들과 나눈 유일한 나의 철학이다. 내 삶을 바꾸는 기획과 실천이 그래서 여전히 내게는 중요하고 그 과정을 다사리의 참여자들과 또한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내 바램이다.

다사리-가능태로써의 변태

다사리에서 만난 많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문화의 정체는 다 다르다. 문화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문화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과 말을 공유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배우는 것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다사리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떠났으며 가끔 다시 왔다 가기를 반복할수록 다사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들이 쌓이고 교차하는 영토가 되며 그 영토는 모이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만큼 확장되며 문화가 충돌하고 교배하는 신기한 영토가 된다. 생각의 차이 만큼 소통의 갈래도 다양해 지고, 이 전방위적으로 열려 있는 입과 귀가 다사리를 또한 숨쉬게 한다.

나는 다사리가 학교이지만 제도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는 땅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고 즐긴다. 그 영역이 좁고 불안해서 언제든 타자의 간섭과 욕망에 의해 소멸될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유연하게 문화의 기획의 즐거움을 증식시키는 다사리는 결국 다사리에 쌓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잠재적 에너지와 가능태로써의 변태들의 장소이다.

나는 이 다사리에서 많은 변태들을 만나고 싶다.

다사리문화기 시작



획 학교의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시작

다사리란 무엇인가?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다사리’라는 말의 뜻과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스물셋의 나이에 독립혁명단체 통제사에 가입하고(1913), 스물아홉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비밀조직에 가담한 뒤(1919), 신간회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열린 민족주의자였던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 1891-1956) 선생은 ‘다사리’를 “우주의 엄정한 질서와 운행법칙을 모델로 하는 인간사회의 정치이념이자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정치적 이상”이라 지칭하였다. ‘다사리’는 ‘모두 다 말(쏟)하게 하여’ 또는 ‘다 사리 운다’ 같은 우리말에서 뿌리 된다는 민세 안재홍 선생의 말은, 정윤재의 민세 안재홍 선생 관련 연구서적 <다사리 공동체를 향하여>의 “다사리는 ‘다 사리어’(다 말하게 하여)와 ‘다 살리어’(다 잘살게 하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사리’에 깃든 철학에 기초하여 다사리문화학교의 설립 정신을 유사한 어감의 ‘다섯’에 빗대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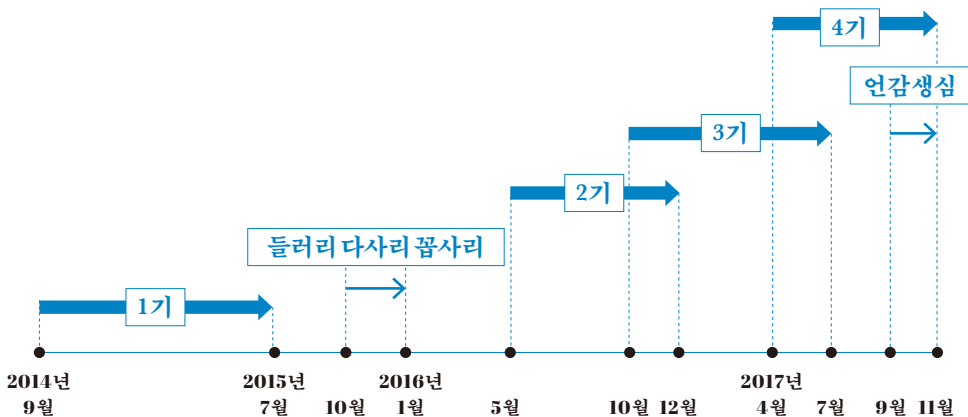
●	●●	●●●	●●●●	●●●●●
한울	들	씨	나엇(나)	다스리다
하늘	대지	씨앗	나라	모두 말하게 하여
				모두 살리어
				다사리

‘모두 다 말(쏟)하게 하여’, ‘모두 다 살리어’라는 뜻을 가진 ‘다사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며 기획하는 문화일꾼을 양성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배경과 철학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정신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공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공부하고 세상과 소통하라 • 오래된 미래교육 • 청년들의 자유, 지역사회의 꿈 • 대화하는 교육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방법, 관찰방법, 사유(명상)방법, 창의방법(글쓰기) ⇨ 방법으로서의 공부 • 값어치 있는 현장실습과 체험 ⇨ 체험으로서의 공부 • 인품형성을 위한 인문학 ⇨ 한시 미학과 동양신화·신체단련 운동과 놀이로써의 공부·얼 깨우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기획, 주도할 문화일꾼 양성



- 1기** 2014년 9월 ~ 2015년 7월
- 2기** 2016년 5월 ~ 2016년 12월
- 3기** 2016년 10월 ~ 2017년 7월
- 4기** 2017년 4월 ~ 2017년 11월

들러리 다사리 꿈사리 프로젝트(1.5기) 2015년 10월 ~ 2016년 1월
다사리야학 연감생심 2017년 9월 ~ 2017년 11월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멘토

김월식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 ‘무늬만 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재생레지던시 ‘인계시장프로젝트’, 중증 장애인과의 협업극 ‘총체적난극’, 동시대 아시아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cafe in asia’와 시흥시의 ‘모두를 위한 대안적 질문 A3레지던시’를 기획하였다. 현재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강정석은 사회와 청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순협 대안대학’의 사무국장으로 경쟁사회와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협력과 공감의 사회를 가꾸어 나갈 용기를 학생들과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이채관은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문화예술 기업가이다. ‘시월 이엔시’ 이사로 전시, 공연, 영화, 축제, 공공예술, 도시재생,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사람과 관계, 생각을 실험하고 연결한다. 또한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로 “서울 와우북페스티벌”을 통해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책이 가진 상상력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임재춘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역임하였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현재 서둔동에 위치한 발효를 탐구하는 ‘생활적정랩 빼꼼’의 대표로 만들기를 실천하는 시민과 작업자를 위한 열린 제작공간을 운영하며 생활기술을 매개로 지역과 상생하며 문화적 수행을 하고 있다.

주성진은 메타기획컨설팅 선임 컨설턴트였으며 2015 현대 생활문화 진단 시리즈 <도시에서 어른들이 노는 법>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청년문화기획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기획에 대한 컨설팅과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1기

2014년 9월 ~ 2015년 7월

참여인원: 24명

수료인원: 14명

수료생

강시내, 강우진, 고미랑, 김가화,
김유진, 김진아, 김해송, 오린지,
윤혁준, 이다영, 이연순, 이용규,
이유진, 김설경

수료생 현황

문화기관 재직	7명
독립기획자	5명
예술가	2명
대학·대학원생	0명

강의

- 김종길: <다사리 정신과
실천으로서의 예술>, <문화기획
난상토론>, <대안문명|녹색평론>
- 민운기:
<되돌아본 나의 지역문화활동>
- 박이은실: <감정과 문화>,
<문화와 사회>, <페미니즘 문화이론>
- 박이창식: <실천으로서의 윤리학>
- 박찬응: <시장에서 예술하기>
- 심광현: <커뮤니티와 기본소득>
- 심혜경: <오늘, 다시 기획하는 과거:
한국영화 구술 프로젝트 사례>
- 용마: <온알의 다사리>
- 이명원: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에 나타난 타자의 문제>
- 이명원: <장소. 기억. 역사>
- 이명원: <현장활동과 타자의 문제>
- 이선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 이장섭: <Ideas to Action>
- 임정희: <‘디지털현대’의 새로운
도시성과 마을문화 | 공공공간에서
되살아나는 사회적 공동성:
유럽 사례들>

- 조지은:〈현장활동 사례〉
- 주요섭:
〈생명의 위기와 문명의 대전환〉
- 하승수:〈녹색세상과 녹색정치〉
- 한문희:〈문화기획 아이디어 워크숍〉,
〈문화정책과 지원사업〉,〈삶과
문화기획〉

워크숍

재활용 공방수업

프로젝트

1 별다방(별난 다사리 방송)

이용규, 김해송

1기들의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영상 다큐를 제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이 별다방 프로젝트의
내용이었으며, 또 그들의 발로 뛰었던
기록들은 늘 찾아 꺼낼수 있는
어여쁜 순간들로 남아있다.

2 재미탐험대

이다영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주하였던 극장에서
고등학생들과 동네에 이야기를 담을
탐험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였다.
‘애들아! 뛰어나와서 우리 같이 책을
만들자! 극장에 나와서 같이 놀자!’

3 빛봄투어

강우진, 이연순, 김유진, 강시내

어떻게 지역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를
찾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경험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생산해내는
‘자신만의 빛 찾고 보기’ 수원 화성 여행
프로그램.

4 줌마콜라

김설경, 김가화, 윤혁준, 홍지수

정자2동 주민센터에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
하였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꿈을 이끌어내고, 주부라는 입장을
대변해서 지친 현실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는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 프로젝트이다.

5 백수남실수녀

고미랑, 김진아, 오린지, 이유진

백수남실수녀(백만원대 수당을 받는 남자와
실업수당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로 현
세대의 청년들이 겪는 보통의 문제로
공감대를 찾아 만들어졌다.

2기

2016년 5월 ~ 2016년 12월

참여인원: 17명

수료인원: 16명

수료생

김건, 김동현, 김선애, 김연지,
김주환, 박미정, 박수민, 박지현,
백지원, 신성은, 엄선아, 윤종혁,
장해린, 조은하, 최상섭

수료생 현황

문화기관 재직	6명
독립기획자	5명
예술가	2명
대학·대학원생	3명

강의

- 강원재: <문화예술로 공동체
재생 기획>, <교육기획사례>:
지식순환협동조합(대안대학)사례,
<노오력의 배신>, <문화기획자를 위한
시대 읽기 강좌>, <문화기획자를 위한
시대읽기>, <미디어의 이해>, <사회
«사회론»읽기>
- 고영직: <‘시민-시민’의 길, ‘시민-
시민’의 길>
- 광동근:
<거점공간을 통한 세운상가 운영>
- 김월식: <기획에서 실행까지>,
<문화와 예술보다 독립적인 삶>
- 민운기: <지속가능한 역사, 문화,
생태, 공동체마을을 만들어가려는
배다리지기>
- 손희정:
<페미니즘: 우리시대의 여성 혐오>
- 신상원:
<문화예술의 마지막 파트너: 기업>
- 이채관: <내가 생각하는 문화기획>,
<도시재생과 이슈들>,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 임의균: <Designing Relationship>

- 임재춘: <나쁜 기획은 없다. 하지만 좋은 기획은 있다>
- 임재춘: <문화예술교육 기획>
- 장동만: <기획의 관계, 사람>
- 주성진: <기획과 계획에 대하여, 기획서부터 프로젝트 실행까지>
- Sange Sherpa: <히말라야 및 동남아시아 문화>

워크숍

- ‘몸의 기술’ 목공 워크숍
: <손은 눈보다 빠르다>
- ‘몸의 기술’ 요리 워크숍
: <밥은 먹고 다니냐>
- ‘몸의 기술’ 목공 워크숍
: <기계-되기-프로젝트>

프로젝트

1 핑크콘돔

김건, 김동현, 김지환, 윤종혁
아트밴더(미술장사꾼) 실험과 전시,
퍼포먼스가 결합한 아트페어를
진행했다. 갤러리와 같은 권위적인
공간에서 탈피해서 가변적이고 날씨
특정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은 입장권
어묵을 구매하고 유쾌한 아트페어를
즐겼다.

2 한 뼉 숲에서 놀이 만들기

김선애

숲을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장소로
지칭하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워크숍)를 함께 진행했다. 과거
행복했던 나를 대면하고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되돌아보며 숲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보냈다.

3 이런 개관

백지원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들과 목줄
없이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애견인구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고,
애견과 인간의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적정공간에 대한 상을 함께
그려볼 수 있었다.

4 조은나 조은맛

박수민

‘마이벨’ 유튜브 채널을 매개로
‘혼밥’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미디어를
제작했다. 건강하고 손쉽게 혼밥을
만들 수 있도록 혼밥러들을 위한
다양한 꿀팁을 공유했다.

5 시시한시월

장해린

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많은 사람들이 시는 어렵고 따분하고 오글거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인이 자유롭게 방생한 시어들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며 나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시를 함께 읽고 우리만의 시집을 손으로 직접 만들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시 엽서도 제작했다.

6 에너지 진도구

조은하

예술가의 상상력이 에너지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재미있고 위트 있는 에너지 진도구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대안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7 우리들

김연지

포천지역 송우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역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고 책자를 발간했다.

8 다말마켓

염선아, 최상섭, 박보라

성남시 수진2동에서 진행한 마을 프로젝트. 물물교환장터 다말장과 공유식탁 ‘뒷담화 식탁’ 등을 열었다.

9 The Post-Wedding

박미정, 박지현, 신성은

330만원에 결혼식을 진행해보자! 새터민부부와 함께 50일동안 합리적인 결혼식을 준비해보았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결혼식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10 다사리어워드

김주환

다사리 2기 멤버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즐거운 상을 받는 어워드를 준비했다. 어워드와 함께 다사리 2기는 마무리 되었다.

3기

2016년 10월 ~ 2017년 7월

참여인원: 19명

수료인원: 12명

수료생

강다영, 김솔, 김예솔, 김혜진,
노소영, 신지현, 이충현, 전형민,
정현지, 조아라, 임애, 한상은

수료생 현황

문화기관 재직	2명
독립기획자	6명
예술가	0명
대학·대학원생	4명

강의

- 강정석: <미디어의 이해,>
<삶을 위한 문화기획: 문화, 사회,>
<삶을 위한 문화기획: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 고영직: <‘시인-시민’의 길, ‘시민-
시인’의 길>
- 김월식: <공공재로써 문화예술: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주도적인 삶>
- 김월식: <삶과 문화예술 교육>
- 이채관: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문화예술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축제기획과 전략: 축제와
문화기획자의 역할>
- 임의균: <Designing Relationship>
- 임재춘: <예술작업에서의 리서치와
기획과정에서의 리서치,>
<홍보물로 읽는 기획자의 의도>
- 정은정: <음식, 세상을 말하다: 우리가
먹는 치킨, 우리가 먹는 사회>
- 주성진: <기획과 기획서>, <기획서
사례살펴보기>

워크숍

- ‘몸의 기술’ 업사이클링 목공 워크숍
:〈변신술〉
- ‘몸의 기술’ 원시천연염색 워크숍
:〈태초에 색이 있었다〉
- ‘몸의 기술’ 식물지도 제작 워크숍
:〈식물들의 사생활〉

프로젝트

1 조금다른운동회

이충현, 김혜진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시선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방식의
스포츠게임을 즐겨보는 '조금다른'
운동회를 개최했던 프로젝트이다.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
하게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아!랑땅

임애

네팔 히말라야 랑땅 지역의 2년
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랑땅
마을 알리기 프로젝트이다.
'우주랑땅파티'라는 네트워크파티를
열어 랑땅 마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네트워크파티에서 마련된 기부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직접 랑땅 마을로

찾아가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였다.

3 아틀란티스

전형민, 강다영, 노소영

'노오력' 하느라 놀 공간과 놀 시간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에게 '노오리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시공간으로 구성된 '노오리터'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유희 건물을
이용하여 방문자들에게 다양하고
색다른 놀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뛰놀았던 어린 시절의
놀이터를 회상하게 하고, 잃어버린
세계(아틀란티스)를 찾아주고자 하였다.

4 Hush Festival

조아라, 정현지, 김슬

삶의 쉼표를 찍는 고요한 자연 속
예술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침묵, 게으름, 혼자
있기, 연결되지 않은 권리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와
강박 없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기고 재충전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5 나의 OO에게

신지현

청소년 5명이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글 한 편을 완성한 뒤 작사, 작곡,
녹음에 참여하여 음반을 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후 음악회라는
형태로 서로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6 올빼미

한상은

나의 삶에 페미니즘이 개입하는
시작점부터 과정까지를 인터뷰, 토론,
채집하고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프로젝트이다.

7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김예솔

멸종위기동물을 주인공으로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일러스트를 그려
그림책을 출판하는 프로젝트이다.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확장해 각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위한 실천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기

2017년 4월 ~ 2017년 11월

참여인원: 16명

수료인원: 15명

수료생

류승연, 박지수, 이도희, 리운소연,
이조은, 이주안, 이해구, 임주희,
장고운, 장운선, 정수환, 정의준,
정하원, 조송현, 술가

수료생 현황

문화기관 재직	5명
독립기획자	3명
예술가	3명
대학·대학원생	4명

강의

- 강원재: <문화예술민간공공협동사업>
- 강정석: <삶을 위한 문화기획:
헬조선에서 '잘' 살기 위한 기예>,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 지순협 대안대학 사례>, <호모
스토리텔리쿠스: 경험의 재발견,
삶의 연속성, 의존과 연대>
- 고영직: <시인의 삶, 시민의 삶>
- 김남수: <유라시아와 신화적 상상력>
- 김상운: <지속가능한 문화기획자의
삶>
- 김월식: <내 삶을 바꾸는
문화기획>, <커뮤니티 아트라는 허상>
- 김종길: <신화적 관점에서 본
문화기획>
- 민경은, 이인혁: <청년 기획자들의
지역활동>
- 민운기: <배다리마을 지키고 가꾸기
10년의 이야기>
- 신상원: <體와 공동체: 작은 워크숍>
- 신윤예: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관계의 연결들>
- 이채관: <공공/민간 문화사업
기획사례>

- 이채관:〈문화기획자란 무엇일까〉,〈축제기획의 사례: 서울와우북페스티벌〉
- 임의균:〈사회적 기업보다 사회적 변화를 실천하는 기업〉
- 임재춘:〈문화예술교육 담론〉,〈예술과 리서치〉,〈지역연구와 문화기획〉
- 주성진:〈10년차 문화기획자는 뭐해먹고 사나〉,〈기획서 작성 팀〉,〈남들이 쓴 기획서, 프로젝트 결과물 살펴보기〉
- 최준영:〈문화 권리와 문화 민주주의〉

워크숍

- ‘몸의 기술’업사이클링 목공 워크숍
:〈변신술〉
- ‘몸의 기술’세계요리 워크숍
:〈갈, 불, 혀 인 어스(in earth)〉
- ‘몸의 기술’명상 워크숍
:〈體와 공동체〉
- ‘몸의 기술’미술·공예 워크숍
:〈씩스썸스〉
- ‘몸의 기술’춤 워크숍
:〈렛잇댄스〉

프로젝트

- 1 윤돌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성문화 만들기 ‘다싸리’
장윤선
노인과 장애인도 성욕이 있다.

세상의 다수가 차지하는 섹스가 아니라 소수자의 성에도 관심을 갖고 문화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장애인과 노인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섹스토이를 만들고자 하며, 최초의 시도는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 여성을 위한 섹스토이 개발이다.

2 부족부족 캠프

이조은, 정하원, 술가, 이도희
부족부족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모인 부족이며, 부족함을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기고 함께 나누며 긍정하는 부족이다. 이 부족들이 모여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워크샵 등의 부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진행할 수 있는 1박 2일 캠프를 만들었다. 그대로를 즐기는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타하며 부정하기보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3 RE-BIRTH

이주안, 조송현
과학기술혁명 이후 4차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등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테크놀로지의 변천사와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에 대한 교육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테크놀로지 학습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혁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4 다먹고 다사리

이해구, 임주희, 정수환, 류승연
경기상상캠퍼스를 오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한 끼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는 서둔동 일대의 맛집을 찾는다. 취향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상상캠퍼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설문을 토대로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고, 상상캠퍼스 이용자를 위한 맛집 지도를 만든다. 그리고 맛집 리스트에 수록된 식당의 대표 음식들로 서둔동의 특징을 담은 케이터링 메뉴를 개발하여 상상캠퍼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모락모락모락

박지수

외할머니와 엄마, 딸의 끈끈한 유대가 있는 가족을 찾아 자주 먹는 평범한 요리와 그들의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집밥에 담겨있는 가족들의 사랑과 엄마들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며,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요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은 역사로 만들고자 한다.

6 마음의 앙상블,

문화공간들의 하모니

장고운, 리온소연, 정의준

문화예술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의 긍정적인 답변을 찾기 위해 경기남부에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에 펼쳐놓은 판을 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록물을 바탕으로 책을 발간하며 〈마음의 앙상블〉출판사를 창업하고 책을 유통하기로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과정과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강

들러리 다사리 꿈사리

2015년 10월 ~ 2016년 1월

참여인원: 15명

수료인원: 15명

수료생

김가화, 김소민, 김해송, 이주연,
이한원, 이해나, 장완희, 조은하,
조한진, 박승현, 윤효진, 이은지,
청년영상그룹 땅도(승현, 현진, 소희)

프로젝트

1 꿈사리 대출

김가화

돈 때문에 각박해져버린 현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가치있게 사용하는 프로젝트.
공적자금으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준다.

2 0.5+0.5 반쪽 세계에 반하다

김소민

서울과 경기도 2개의 지역을 반반씩
사진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색다른 기록 방법으로
거리를 초월한 일상의 공유, 이질적인
공간의 어울림을 느껴본다.

3 하루달力

김해송

참가자에게 하루 한 장의 사진과 한
개의 생각을 받아 달력을 만든다.
사회적 시선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개인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바라본 '하루'들에
집중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4 뽀 투 더 싱글~!

이주연

건전한 일탈을 통해 결혼과 출산 이후 잊고 있던 자아를 찾아간다. 자신의 일탈을 기획하고 관심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채우고 채움을 통해 진정한 '쉽'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5 공예의 쓰임과 가치에 관한

공예문하서적 고찰-공예의

공존과 확산

이한원

공예는 인간 방식에 가장 민감한 예술 장르이다. 산업혁명 이후 넘쳐나는 공예 적 산물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공예에 대한 자각을 시도 해 보고자 했다. 일품과 복제품의 가치와 쓰임에 대한 교차과 차이를 비교하며 현대공예의 본질에 관련된 숙고와 지향점을 모색한다.

6 블랙박스 필름

이해나

1인 창작 가능한 버려지는 블랙박스 안의 영상, 일상의 이동시간에 기록되는 영상들이 다큐멘터리로 탄생되길 원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매일 자신의 블랙박스의 영상을 공유, 영상 비전공자와 장편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7 이기적인 나만의 아침밥상

장완희

아침밥을 먹으며 대화한 것을 채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전시한다. 이기적인 아침밥상의 식단 구상, 준비, 배우자와 함께 식사까지의 과정은 노력을 통한 관계 증진과 생각의 전환을 불러왔다.

8 그곳에 같이 가요

조은하

자신의 특별한 장소를 소개시켜줄 참여자에게 여비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참여자와 나눈 이야기와 분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공유한다. 장소에 기반 한 사적인 기억과 감상을 교환하고 장소를 함께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유되는 것들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9 DOODLE ONAIR

조한진

시민과 학생들이 빔 프로젝터로 투사되는 화지에 여러 대의 아이패드로 여러 명이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화 한다. 과도한 규제와 틀 안에서 교육받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교육제도의
프레임을 깨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개인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여
다큐멘터리로 재현한다.

10 옛든다오뎡바

박승현

각자의 삶에 지쳐있는 관객(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아지트 같은
공간(오뎡바)을 만들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적는다. 예술이란 같이 즐기고
눌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나’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로 성숙해진다.

11 Dreams come true 그림일기

윤희진, 이은지

그림일기를 통해 어린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한다.
신청자들에게 어린시절의 꿈을 재연
해 주고 이를 그림일기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시간을
전달한다.

12 당신의 역사를 만듭니다

청년영상그룹 땅도

(승현, 현진, 소희)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류역사보다 평범한 개인의 역사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관점으로
특정 지역(서문동)에서 오래 살았던

특강 다사리아학 — 언감생심

2017년 9월 ~ 2017년 11월

참여인원: 63명

수료인원: 22명

수료생

강민아, 강인, 강정훈, 고아라,
김솔, 김수은, 박슬기, 박은미,
박지수, 백운상, 변소연, 양다연,
양문영, 이소연, 이채윤, 이충립,
이해구, 임주희, 조주현, 조향진,
지연경, 황자연

강의

- 김종길:〈압축 성장 대한민국
문화사:광야는 넓고 고수는 많다〉
- 김남수:〈접신의 문화기획-
주름속의 신화와 문화〉
- 고영직:〈엮는 기술-비만의
레퍼런스와 지식의 다이어트〉
- 선윤아:〈메이커스와
제작문화-놀이와 만들기, 덕후와
문화다양성〉
- 김월식:〈위험한 놀이와 건들거리는
상상력-비문화적인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 민운기:〈언감생심 도시재생-
문화기획으로 과연 가능한
상상인가?〉
- 박찬국:〈뭇빵의 문화기획-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생활문화〉
- 김상윤:〈알미운 문화지원 정책,
영리한 문화기획자〉
- 백기영:〈쫓지않고 기획자의 배짱을
확장하는 방법〉
- 이채관:〈축제기획-누구를 끄셔서
즐겁게 놀 것인가?사례살펴보기〉



강의 리뷰



1	푸른지대 공간살이	고미랑 다사리 1기
	강의명	장소·기억·역사
	강사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비어있던 공간이 장소화가 되기 위하여 사람들은,공간을 기획하고 기록하고, 구획하고,부수고,만들곤 한다.그렇게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공간이 되면, 이야기와 스토리가 나타난다.사람들의 목소리와 역사가 말이다.우리가 공간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곳.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 할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수 있는 자리가 된다.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장소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이명원 선생님 강의 발췌

‘푸른지대’ 공간은 경기상상캠퍼스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14년 동안,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 올 수 없었던 폐허로 방치되었던 곳이었다.사람의 발자국의 기억은 14년 전에 멈추었지만,이곳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은 구전과 여러 매체로 기억되고 있다.그 기록을 살려,이곳을 재생시켜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지금은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경기상상캠퍼스에 자신들의 꿈을 위해 입주 청년들,이곳을 시민문화공간으로 쓰이게 하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오픈 공간과 여러 행사들이, 굳게 닫혀있고 내버려져 있었지만 숨겨왔던 쓸모를 되살리게 하고 있다.그 중에 나 또한 이곳 공간에 터를 잡아,내 스토리뿐만 아니라,경기상상캠퍼스 전체 스토리에 한 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공간에 커뮤니티가 일어나게 하고, 지역과의 더부살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상상력, 기획력이 이곳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지역 문화기획과 지역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그 장소, 공간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고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장소, 공간의 어떤 것을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 표현, 기록 할 것인가?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명원 선생님 강의 발췌

위 맥락으로 내가 있는 경기상상캠퍼스는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으로의 장소의 기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나는 이곳에 입주한 청년으로서, 또한 다사리문화기획학교 1기, 그리고 경기상상캠퍼스 앞 마을 벌터마을에 문화마을 사업에 일환이었던 여러 교차지점을 만들어 내며 다사리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지역문화기획을 실천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생존으로써 문화기획. 상상캠퍼스의 공간 살이는 비어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여러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다. 그 비어있는 몇 가지를 말하자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생각, 취지일 것이다. 재개발을 바라는 오래된 구도심 지역에서 왕왕 나타나는 오래된 것을 부수고, 건물을 세워 월세와 전세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되어 옛 이야기와 사람 사는 스토리가 지워지는 공간들의 모습 속에 지역문화기획의 필요성을 말하기에는, 그 힘이 역부족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어왔다.

또 한 가지 비어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항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병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지역문화기획 또한, 전월세를 통해 계약되는 입주자와 세입자간의 몇 년의 계약관계처럼, 몇 년 안에, 압축적으로 문화와 스토리를 공간 안에 채워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듯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후 지속할 수 있는 것과, 곳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 ‘빔’을 채울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기에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필요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상상을 제시하는 문화기획력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명원 선생님의 장소, 기억, 역사 강의를 통해 나의 현재의 장소성에서 살아서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를 통해 배웠던 실천적 삶의 형태이다. 장소를 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지점에 대해 배운 것을 글로 옮기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화기획이기에, 항상 언대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들에서, 발생되는 무엇들이 장소에 기억될 만한 좋은 커뮤니티 사례로 남게 되길 바라며 오늘의 푸른지대 공간살이 늦은 밤 한 꼭지를 채우며 사람들과 안녕을 한다.

2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것		고미랑 다사리 1기
	강의명	페미니즘 문화이론	
	강사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운영위원	

문화기획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을 기획함과 더불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 가정주부, 엄마, 혹은 딸, 아들의 역할 등, 우리가 하는 여러 역할에서의 삶을 위한 ‘기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일상 밀착형 기획을 말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페미니즘의 명제를 관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기획의 의미와 실천이기도 하다.

삶을 기획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상의 몸짓이자 언어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습득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다듬어 가고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에서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삶에서 만나는 불편한 요소와 틀에 대항하고 맞서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한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나는, 내가 속하거나 소속된 곳에서 듣는 각각의 정치언어, 일상언어, 지인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들, 사회뉴스 면에서 만나는 목소리에 뒤섞여 나의 언어를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 혹은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느낀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경험들이 흐르는 말과 언어에서 잡사리도 귀 기울이기도, 무엇이 옳은지, 우리 안에 와 닿는지 판별하기도 쉽지도 않고 말이다.

그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고자 하는 행동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들, 하지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 말이다. 여자인 나의 경우는 정해진 나이 때가 되어, 결혼해야 하고, 출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선택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것들로 사회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성숙해졌다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다 라고 판명하는 기준들이 된 것이 불편한 지점들이 있다. 물론 남성으로서도 내가 느끼는 지점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결혼한 가족이여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있으니 말이다. 나의 개인의 선택의 욕구들이 타인에게 재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혼주의, 동성애, 장애인,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약자로 분류되는 자연까지. 가장 훼손되기 쉽고, 배척되기 쉬운 존재들을 나와 다르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주체적인 존재들로 존중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들이 정립 되고 그 생각을 행하고 말하고 실천 할 때, 비로소 나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 ‘나’이든 타인이든 한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 시작하였을 때,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억압이 풀려나기 시작할 것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목소리를 누르는 무수한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기획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것이 페미니즘에서, 그리고 문화기획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일 수 있는 일상에서 정치를 하는 일상정치의 모습을 것이다.

문화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전통적으로 수동적 역할을 해오던
문화소비자들을 적극적 생산자로 변환시키는 것이듯 페미니즘
문화이론도 하위주체들이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읽고’ 적극적으로 담론을
생산해 내는 비판적 담론 주체로 변환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갖는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명제는

페미니즘 문화연구를 통해 관찰되고 있는 명제이기도 하다.

또한 페미니즘 문화이론은 문화와 자연을 위계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남근 이성 중심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사유체계를 성립하는 것도 그 목표 중 하나로 갖는다. **특히 문화와 이성을 남성의 영역으로, 자연과 감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위계적으로 구분 배치하고 이를 재생산해 왔던 근대 남성 중심적 사유 체계를 해체하고 타자화가 아닌 상호주체화가 가능한 관계 정립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이은실 선생님의 강의 요약 발췌

불편함을 마주 하는 것은 어렵다. 불편함을 보는 것은 그것에 대해 우리의 행위를 수반하게 한다. 외면하거나 함께 불편을 감수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끔 꿈꾸거나 하는 우리의 선택의 가치를 던져준다. 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오늘도 나는 방향을 잡아간다. 페미니즘의 온도를 덧입은 문화기획은 소수자와 소외되는 것,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게 할 것이고 무수한 돈의 논리로 환원되는 자본주의와 누군가가 뒤쳐지고 죽어야지만 하는 경쟁주의, 나의 앞을 늘 가로막는 새로운 벽들 앞에서 나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소외된 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 불편함이 나의 삶을 기획해 나가는 것에 기꺼이 나도 용기를 내본다.

강의명

지속가능한역사, 문화, 생태, 공동체 마을로
만들어가려는 '배다리지기'들

강사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생태, 공동체, 마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했지만 배다리 마을 이야기는 뭔가 특별했다. 배다리마을은 인천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의 한 복판에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배다리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투쟁중이기도 하다. 속도, 발전 효율성과 경제성장이 마을을 그대로 관통하려고 한다.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는다. 행정은 다양성을 무시하고 미적 획일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주민간담회를 명목상 진행하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들꽃들을 다 뽑고 마을과 어우러지지 않는 형형색색의 화단을 만들기도 한다. 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생태 놀이 숲을 쉽게 철거하기도 한다.

배다리 마을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날 동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이다. 동네 주민들의 삶은 빨리빨리 생활방식에 반대하듯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집 근처나 지붕에 식물을 많이 키운다. 길거리에 빨간 고추를 말리기도 한다. 동네 고양이들은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주민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예정된 산업도로가 마을을 관통한다면, 마을은 반으로 쪼개질 것이고 큰 도로의 소음과 발생하는 먼지들로 마을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란 뭘까? 공동체와 생태, 마을과 같은 개념도 속도와 효율성,

발전, 경제성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이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다리마을은 과거에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미래적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내일을 준비하는 마을이다. 왜냐하면
배다리지기들이 속도, 효율, 성장, 발전에 대한 대안이자 반격을 이어가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림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을 끝없이
실험하기도 하고, 모든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생하기 위해 그들을 서로를 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운기 대표는 지속가능성은 의지, 수행(실천),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민운기 대표의 활동은 그 세 가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칠 법도 한 인천시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인천시가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아주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사리에서 기획을 이야기 할 때 수행과 실천의
중요성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배다리지기들의 활동들은
많은 여운이 남는 것 같다. 단순한 이벤트성 기획을 넘어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는 활동은 곧 문화기획의 진정한 수행이 된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투쟁. 산업도로가 마을을 비켜갈 수 있을까?
배다리지기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며 인천시가 한번쯤은 다른 선택을 하길
기대해본다.

4	조직문화 디자인	신성은 다사리 2기
	강의명	Designing Relationships;
	강사	임의균 슬로워크 대표

슬로워크는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돕는 디자인 솔루션 회사이다. 그래서 슬로워크의 디자인 작업은 특별하다. 그들은 디자인 작업을 통해 변화를 실천한다. 그 중에도 내가 주목한 부분은 슬로워크의 조직문화이다. 슬로워크는 조직문화 디자인은 디자인을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 시킨다. 문화를 디자인 하는 기업으로써의 슬로워크는 신선하고 흥미롭다.

나는 문화재단에서 첫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조직의 모습은 내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다. 두 번째 조직 역시 문화재단이었는데 이곳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보다는 조직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나는 두 번째 문화재단을 결국 5달 만에 퇴사했다. 조직문화는 생각보다 경직되어있었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는 늘 강조되었지만 조직 안의 문제를 숙시원하게 이야기하거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 간혹 마련되는 자리도 형식적으로 끝나기 마련이었다. 나는 결과보고를 작성할 때마다 성과를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 늘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대한 가리면서 작은 성과는 크게 부풀리고 포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했다.

그래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신뢰는 만들어가는 슬로워크의 행보가 정말 놀라웠다. 슬로워크는 연차보고서에 셀프 디스를 넣기도 하고 고객사가 알아채기 힘든 실수를 먼저 오픈하기도 하면서 당장 보면 손실이 생길 것 같은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어간 경험이 많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선배들에게 얻은 팁 중 하나는 너무 솔직해도 안 되고 가릴 수 있는 단점은 최대한 가려서 굵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조언에 충실했고 실수를 해도 가리기에 급급했고 어떻게 하면 티 나지

않게 수습할 수 있을지 꿈꿨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나의 부족한 모습과 단점들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수용해 나가면서였다. 결국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포장을 벗어던지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오픈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기획 현장과 문화쪽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있을까? 당장의 손실을 떠 았더라도 더 멀리 바라보고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왔던 기획 작업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본다. 나의 기획 작업에 얼마나 많은 포장들이 있었는지를.

두 번째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직문화가 정말 놀라웠다. 슬로워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하고 있었고 자유롭게 팀을 이루어 팀이 프로젝트와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팀원이 발리에서 원격근무를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반드시 사무실 안에서 주어진 업무분장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했던 나에게는 정말 충격이었다.

심지어 직원들이 누리고 있는 사내 복지는 충격 이상이었는데 만2년 근무 후 주어지는 유급의 안식월, 기본 15일의 휴가를 넘어서 상한이 없는 휴가일 등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복지였다. 15일의 휴가는 1년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매년 휴가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고, 만2년 근무해도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퇴사해야 하는 수많은 계약직 근무자들을 생각할 때 이런 복지가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을 이렇게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될까 등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해서 스쳐지나갔다.

인사 관련한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다. 인재상이 아닌 반인재상을 가지고 슬로워크는 합격자와 통과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적합자를 채용했다.

경영지원팀은 경영디자인팀이 되어 관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 안의 관계를 만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함께 제도를 만들고 더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사실 나는 소위 문화관(?)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많이 실망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하나이다. 두 번의 조직생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임금과 빈약한 복지혜택 아래서 일의 회의감을 너무 많이 느꼈다. 조직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행정적이었고 근무환경은 틀에 박혀 있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늘 덮어두고 급하게 사업을 운영하기에 바빴다. 조직이 조직원을 위해준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다. 업무 강도가 높은 순간이 너무 많았고 주말이나 저녁에 일하면서도 제대로 수당을 챙겨 받거나 휴식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 안에서 일하면서 소진되고 또 소진되면서 나는 후배들에게 더 이상 문화관에서 일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 더 속상하고 슬픈 점은 여전히 많은 기관들과 조직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문화를 바꾸고 문화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람다운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던 슬로워크의 이야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소통하는 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 모두 정말 이런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의심이 갈 만큼 강의 내내 나는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일자리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슬로워크와 같은 회사가 많아진다면 취업문제는 자연스럽게 많이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곳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다운 회사일 것이다. 의미 있는 시선을 천천히 발견하면서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움직이는 슬로워크를 계속해서 응원하며 슬로워크와 같은 회사가 점점 더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를 다루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길 바란다.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할지, 함께 일하는 기획자, 예술가, 행정가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며 기존의 시스템이 새로운 관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지금의 시스템을 들어내고 새로운 조직을 빛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

한 명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산다는 것

김혜진
다사리 3기

강의명	‘시인-시민’의 길, ‘시민-시인’의 길
강사	고영직 문학평론가

한 명의 시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한 명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강의 제목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질문의 정체는 시인과 시민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의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고영직 선생의 이야기는 물리적인 강의 시간을 강력하게 압축한다. 강의가 끝난 후, 나의 고개는 자연스럽게 끄덕여진다. 시민의 개념이 열리는 순간이다.

우리는 어떤 기획자가 되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획자, 치밀한 기획력을 가진 기획자, 좋은 평가를 받는 기획자 등.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영직의 답이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은 그저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나 또한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공부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공부.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왜 행복한지 알아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자신을 위하는 기획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의 행복을 타자와 나눌 수 있는 시작으로써 문화기획이 작동되는 경험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강의 제목에 쓰인 단어를 살짝 바꾸어 보았다. 문학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한 명의 ‘시인’이 되기 보다 한 명의 ‘시민’으로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의 ‘기획자’가 되기 보다 한 명의 ‘시민’으로 살기”로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명의 기획자는 기획자이기 전에 한 사회의 시민이다. 기획자가 ‘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목표하는 무엇인가가 ‘되기’는 자기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자신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주체적인 존재로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명으로는 사회가 구성 될 수 없고, 시민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시민이 되는 동시에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자기 기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남을 감동시켜 그들과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한 명의 시민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기획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강의명

음식, 세상을 말하다:우리가 먹는 치킨,
우리가 먹는 사회

강사

정은정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

‘내가 치킨을 먹어서 누가 행복해지는가’

정은정 선생의 강의 중 던져진 질문이다.

정은정의 질문의 방향은 강의를 듣고 있는 다수를 향해 전방위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질문은 일상을 관통하고 있는 개인의 삶의 의미에 소외된 사회의 이면을 호출한다. 문화기획자가 읽고 사유해야 할 평범한 행위의 이면의 층위를 스스로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누가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다. 치킨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을 먹는 관성을 넘어서는 질문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결국 우리는 치킨을 먹는 것 같은 삶의 관성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다. 문화의 관성도 문화기획의 관성도 비슷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이고 안전하고 질문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문화적 삶이라는 것은 정은정의 질문처럼 고민과 문제의식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어찌면 죽을 때까지 한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는 이 질문을 통해 겨우 익숙한 삶의 이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 통로를 보았다. 부끄럽지만 나는 치킨을 먹어서 발생하는 포만감과 탐미적 식감을 통해 소소한 행복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나의 일상을 소소하게 행복하게 하는 그 치킨이 어디서 어떻게 키워지고, 어떤 사람들과 경로를 거쳐서 내 앞에 오는지는 관심조차 없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의 생산과 유통이 그렇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공산품도 그렇다. 개인적 취향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는 소비적 욕망을 넘어서는 과도한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치킨을 보고 마냥 치킨먹기의 사소한 행복을 마주하긴 어렵게

되었다.치킨 한 마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발생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사건들은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점주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는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가맹업주들의 애환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치킨을 통한 사유는 삶을 읽고 사유하는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정은정의 강의는 처참할 정도로 치킨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유통까지. 치킨이라는 일상적인 음식으로 우리 사회를 낱알이 파헤쳤다.치킨을 통해 본 우리사회는 대기업의 손바닥 안에서 움적이고 있는 중이다.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그리고 사회를 독식하고 있다.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이미 우리의 삶은 기업화되어 있지만 그들이 주는 효용적 기능에 가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강의는 힘들게도 다양한 삶의 배후에 있는 자본의 속성과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치킨으로 비롯한 사유는 문화기획자로서 세상을 향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한 명의 기획자로서,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려진 진실을 보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충동질 한다.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잘 볼 수 있을까?치킨에 대한 정은정의 연구 태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치킨연구를 위하여 정은정은 치킨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주로 위장해 창업설명회에 참여하고, 치킨학원에서 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닭을 튀기고,직접 프랜차이즈 점주 및 양계농가의 목소리를 들었다.사회학자로서 단순히 현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다양한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보다 수행과 실천에 기반한 경험으로 리얼한 사회의 모습과 마주하였고,이를 누구보다도 입체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다사리의 강의에서 다양한 강사들의 목소리들은 이 실천과 수행에 기반한 개인의 성찰과 사회적 언어로의 번역 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전달된다.읽고 사유하는 법,관점을 만드는 법,타자에게 말을 거는 법으로써의 실천과 성찰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누가 행복해지는가’의 나로부터 확장된 질문으로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보이지 않는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이다.

강의명

문화예술민간공공협동사업

강사

강원재

경기상상캠퍼스 예술감독

미로 같았던 세운상가에 곧장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생겼다. 깔끔한 아케이드 형태의 서울옥상이라 불리는 공간도 생겼다. 서울시의 도시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다시세운프로젝트’로 공간의 모습이 바뀐 것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과정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덕에 세운상가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세운상가의 아케이드가 공사 중일 당시 전시 관람을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 빨갭게 칠해진 아케이드 바닥은 원래 상가였던 흔적이 면면에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던 상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전시를 담당했던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아케이드 공사를 위해 상인들은 보조금을 받고 세운상가를 떠났다고 한다.

세운상가 역시 다른 지역에도 발생하는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세운상가의 재생사업으로 상인들 속에서 장인을 발굴하고, 청년 활동가들로 상가가 활발한 분위기가 되었으나 상가의 세입자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로 상가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남아있던 장인들도 상가를 나가야 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서울시민과 더 맞닿기 위해 만든 세운상가로 바로 통하는 길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곳의 터주 대감 이었던 상인들에게는 나가야 하는 길이 되기도 한 셈이다. 지역 재생과 정주감, 이주의 문제는 물론 쉽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디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깊은 고민과 소통을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의 합의와 이해를 얻기 위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재생 프로젝트가 몇 십 년 동안 껌껌하고

할렘가 같았던 세운상가에 불을 밝힌 것은 확실하다.그런 측면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 지 살펴야한다.’라는 강원재 예술감독의 말이 인상 깊다. 강원재 감독의 말대로라면 겉보기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운상가의 내부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한 것은 진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상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또 상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만들기과 그의 삶이 담긴 호칭을 새롭게 정의한 것 역시 세운상가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었다.세운상가의 진짜 주인인 상인들의 이야기를 여러 개의 스토리로 정리하면서,각자에게 최고의 호칭인 ‘장인’이라는 타이틀은 기술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천시 받던 상인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수 있는 동기로 작동 되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책에 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지역 개발 및 재생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세운상가 재생프로젝트처럼 공간의 의미와 분위기를 살리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하는 재생사업으로 진행될 공간도 산재해 있다.중요한 것은 지역개발과 재생사업의 정책적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기존 세입자와 원주민,그 곳의 정체성을 만든 역사와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생사업의 파트너가 누구일지 설정하는 데 삶과 삶을 연결하는 태도의 철학이 필요하다.기존 상인의 삶과 재생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되고 변해갈 공간의 삶과 새로운 사람의 삶을 잘 엮을 수 있는 기획자로서의 태도를 갖추는 것은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

8	실천하는 공감의 이야기	박지수 다사리 4기
강의명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관계의 연결들	
강사	신윤예 000간 공동대표	

공감, 공유, 공생을 위한 디자인. 이 말이 실천하기 힘든 말인 것은 학생 시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조경학과에 재학 중일 당시 공모전에 참가하며 스펙 올리기에 힘을 쏟은 적이 있다. 해마다 공모전의 인기 대상지가 바뀌는데, 2011년 당시에는 커뮤니티 디자인이 유행하면서 판자촌처럼 급격한 경사지에 밭 더딤 없이 붙어있는 마을이 인기 대상지가 되곤 했었다. 공모전에 제출하는 A0 사이즈의 패널에는 으레 대상지의 정보, 기대효과, 공간구성,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따위가 들어가야 했는데, 한창 벽화마을이 유행하면서 벽화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학교 선배들과 낙산공원 일대의 이화동과 창신동의 판자촌 마을을 대상지로 정해 한창 여름동안 열을 올리며 공모전을 진행했었다. 낙산성곽을 둘러싼 마을의 지역재생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창신동을 낙산성곽과 네트워킹하는 마을이라 지정하며 도시 텃밭이니, 플랜터 조성이니, 그린웨이 형성이니 하는, 다른 공간에도 똑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게다가 창신동에 봉제공장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투리 천으로 벽의 구멍이 난 곳을 메꾸어 추위를 막겠다는 프로그램까지 적어냈다. 결과는 처참히 탈락.

창신동만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샘솟듯 지냈던 지난날의 기억을, 공공공간의 신윤예 대표의 강의로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다. 내가 했던 공모전의 방식은 공감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공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마을을 이렇게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다 참여하며 즐길 것이다

라는 완벽한 탑 다운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마을의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에 이해하려는 척 하면서 오히려 공감은 전혀 되지 않는 탑 다운의 방식은 결국 보기 좋게, 예쁘게만 마을을 디자인하는 안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내내 일을 하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놀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윤예 대표는 아이들이 왜 혼자 놀고 있는지, 왜 자꾸만 서로 싸우는지, 창신동 봉제공장의 사람들은 왜 힘들게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마을에 커다란 쓰레기 봉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실제로 행동했다. 이 틈에서 공감, 공유, 공생을 위한 공공공간의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을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관찰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은 커뮤니티 아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디자인과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이 둘이 함께 적절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을 하고 몸으로 실천하라는 태도는 앞으로도 이어갈 중요한 태도라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워크숍



몸의 기술

다사리의 모든 워크숍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한 상상력의 확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 이 조건들은 이성적 사고의 관성과 전체주의적 사고를 비틀고 해체할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개별적 상상력과 자기 감각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용기와 수행력이 창의력을 만드는 통로를 열 수 있다는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뢰르 개념을 원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몸의 스킴을 통해 몸의 감각을 깨워 관계를 사유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성장시키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총체적인 워크숍이다. 때문에 대주제는 ‘몸의 기술’로 상정하고, 신체의 각 부분의 움직임과 기획의 창의성과 수행성을 연결하는 그 시작으로서의 손기술인 목공과 요리, 수집과 몸각의 관찰, 춤출 수 있는 몸으로 확장하며 이 모든 경험을 글과 근육으로 기록한다.

변신술

목공을 통한 몸의 성찰 1



변신술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있는
언제나 변형될 수 있는 재활용을 기반으로
한 업사이클링 목공 워크숍이다. 변신술은
잠정적이고 우연적인 배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보는
방법이며 부수고, 해체하고, 조립하는
프로세스에 개입되는 근육의 생각이다.
변신술은 문화기획에서 실천과 수행의
태도를 탐색하는 몸의 훈련이다. 변신술은
때문에 몸뻑의 사회적 미학적 연구이며
나무와 도구를 다루지만 쉽게 목공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몸의 성찰을 다룬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목공을 통한 몸의 성찰 2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적 사고의 특성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브리콜뢰르 bricoleur’를 통해서 설명한다. ‘브리콜뢰르’는 아무 것이나 주어진 도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에 대비해서 가리키는 ‘손재주꾼’을 말한다. ‘손재주꾼’의 기술은 그 구성이 잡다하며 광범위하면서도 한정된 재료로써 무엇을 만든다. ‘손재주꾼’의 특성은 신화적 사고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무슨 과제가 주어지면 신화적 사고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화적 사고는 일종의 지적인 ‘손재주(브리콜라주)’인 셈이다. ‘손재주’와 신화적 사고의 표현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유추와 비교를 통해서 목록화 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을 모아서 계획 한다. 몸의 기술은 신체의 각 부분의 움직임과 기획의 창의성과 수행성을 연결하는 그 시작으로서 ‘손재주꾼-손기술-손은 눈보다 빠르다’로 연결되는 목공 워크숍이다.

“손재주꾼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엔지니어와는 달라서 그 일의 목적에 맞게 고안되고 마련된 연장이나 재료가 있고 없고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의 세계는 한정되어 있어서 ‘손쉽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승부의 원칙이다. 말하자면 그가 갖고 있는 도구와 재료는 항상 얼마 안되고 그나마 잡다한 것들이다.”

(야생의 사고, 레비스트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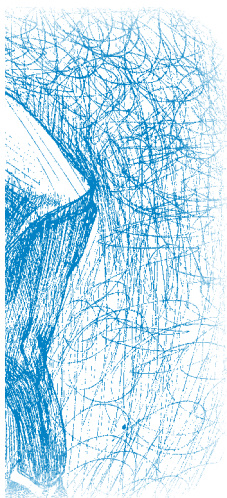


기계-되기

목공 장비와 기계에 대한 탐색



목공 기초 워크숍 ‘손은 눈보다 빠르다’를 이수한 다사리 참여자들의 목공 워크숍 중급과정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목공 툴 교육을 이수하고 도구에 익숙해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 장치를 활용한 목공 기계의 숙련된 사용을 통해, 목공에 대한 매체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면서 참여 주체적 디자인과 수행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신체를 닮은 가구를 상상하고 기능과 디자인사이의 거리, 가구의 효용성에 대한 철학과 질문을 만드는 워크숍이다.



칼불혀 인 어스

요리를 통해 문화 다양성 읽기



‘칼 불 혀’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도구와 재료, 감각을 상징하는 워크숍이다. 여기서 칼은 단순히 음식의 재료를 분해하거나 썰는 도구를 넘어서는 문화적 매개체로서의 칼이다. 또 칼을 사용하는 방식과 재료의 손질에 따른 칼 종류의 변화, 불을 만나면서 진화되는 칼등 도구적 칼의 인류학적 관점의 읽기를 시도한다. 또 칼을 쓰는 근육과 몸, 칼질의 관성과 예술과의 관계성도 주목한다. 맛을

보는 신체 기관인 혀의 다양한 상징성 역시 문화적 상상력과 실천을 자극한다. ‘칼 불 혀’는 다양한 나라의 요리와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을 상상하게 하는 통로를 여는 워크숍이다. 동시대 대한민국과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이주민들의 요리를 통해 그들의 문화에 접속이 가능하고, 이런 경험은 요리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경로이다.

식물지도 만들기

경기청년창작소 내의 숲길을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워크숍이다. 걷기와 휴식을 통해 인식되는 개인적 생각의 속도는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개별적인 성찰을 만들어 낸다. 관찰과 성찰의 관계에 개입되는 숲의 온도와 숲도, 빛의 양, 바람을 바라보는 피부, 생각을 만드는 발의 촉감등이 이런 관계에 대한 설정을 만드는 재료들이다. 식물지도 만들기 워크숍은 미시적인 관찰의 경험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존재한다. 식물을 관찰하고 이를 시각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밀화’의 형식을 빌어온다. 이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넘어서 ‘보는 관점’을 배우는 과정이다. 개인의 사유를 만드는 과정과 숲의 장소성이 마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워크숍이다.



씩스센스-드로잉

씩스센스-드로잉은 동시대 드로잉적 프로세스의 속성을 통해 문화 기획자의 다양한 감각적 관찰과 사유의 경로를 탐색하는 워크숍이다.

동시대 예술 영역에서 드로잉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동시대 예술 영역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만큼이나 방대한 일이다. 그것은 드로잉이 갖고 있던 전통적 속성을 포함하면서도 동시대 예술 영역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양상에는 드로잉 특유의 장치들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캔버스나 종이 위를 가로지르는 연필이나 붓질만으로도 작가가 개척하는 새로운 미적 영토의 토질들의 차이가 분명한데 드로잉 특유의 가능태와 잠재태의 불확정적 인자들을 수혈 받은 현대 예술의 DNA들은 번식 기능이 왕성한 원생생물처럼 자가분열과 자가 증식으로 세를 나누고 혼성모방과 이종교배로 드로잉의 새로운 사생아(예술)를 생산하며 진화한다. 문제는 이 드로잉의 사생아(예술)들이다. 이미 수많은 겹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구축된 드로잉의 아이돌들은 그 겹만큼이나 다양하고 파격적이며 그 근본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개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속칭 개(?)죽보가 되어버린 동시대 예술과 드로잉은 어쩌면 그 계보를 추적하는 일 자체가 무색한 일이 되어 버릴 정도로 그 자체가 이미 지존의 흉내를 내고 있다. 동시대 예술에 존재하는 다양한 드로잉 DNA의 지존들과 숨어있는 드로잉 지존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작가적 태도를 갈고 닦는 컨템포러리 라는 무림은 그야말로 드로잉의 춘추전국시대이다. 무림은 넓고 고수는 많다. 모름지기 고수의 주변엔 신화가 많은 법, 어쩌면 동시대의 드로잉들은 이런 신화의 구조를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대표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나카자와 신이치의는 그의 저서 ‘예술인류학’에서 신화와 신화적 사고의 의미를 일반적 논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비틀림’을 가진 특유의 논리로 이야기 한다. 이는 무시간적이며 모든 것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는 ‘대칭성의 논리’와, 모든 것을 이야기의 질서에 따라 배열하여 말할 수 있는 논리력의 결합체가 곧 신화라고 이야기 하는데 원초적 야생이 살아있는 감성적 영역으로써의 ‘대칭성의 논리’와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대칭성 논리’를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며 이 상반된 입장이 균형 감 있게 조화를 이루는 중요성으로 동시대의 역할을 주문한다. 실제로 이는 산업화 이후 과학 문명이 고도로 성장 발전을 이룬 현대인들의 두뇌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그 효용성과 가치가 절하된 ‘우뇌’의 기능회복과 그 잠재적 가치의 부활에 대한 주문인 동시에 시각 중심적이며 이성 중심적인 상식의 관성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풀이 할 수 있다. 때문에

신화가 갖고 있는 ‘비틀림’의 논리는 결국 동시대 예술계에서 감성의 회복, 감성의 번역, 새로운 프레임의 감성 공학적 실험으로 확장되며 동시대 드로잉은 전통적인 제의와 기복적 감성의 떨림에서부터 새로운 매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며 그 기능을 해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영토를 개척하는 탐험가의 심정으로 감성의 스펙트럼을 개간한다. 그런데 이 감성의 스펙트럼은 이성의 바깥에서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영역을 투과해서 존재하기도 하며 스며들어
있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병치되어 있기도
하여서 좀처럼 그 범주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감성의 장치들이 개입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현되며 의도적으로 이성을 놓아
버리는 경우도 발행하고 추적자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감성의 함정과 덫을 놓기도
하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부조리함과
결합하여 감성의 길을 잃게도 만들고,
타임머신처럼 시 공간을 분절시켜 이성적
해석과 접근이 불가능한 초현실적 경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징후의 배후에는
예술 그 자체의 생태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야생적 기질과 드로잉의 그
원초적인 DNA인 잠재태적 속성이 존재하며,
또한 어떤 예술장르와도 사회적 사건과도
작가의 개별적 욕망과도 유연하게 교접할
수 있는 드로잉의 대범한 관계지향성향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학제적 의미와
개념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감성의 이끌림에
대한 인간 본연의 육감적 본능이 꿈틀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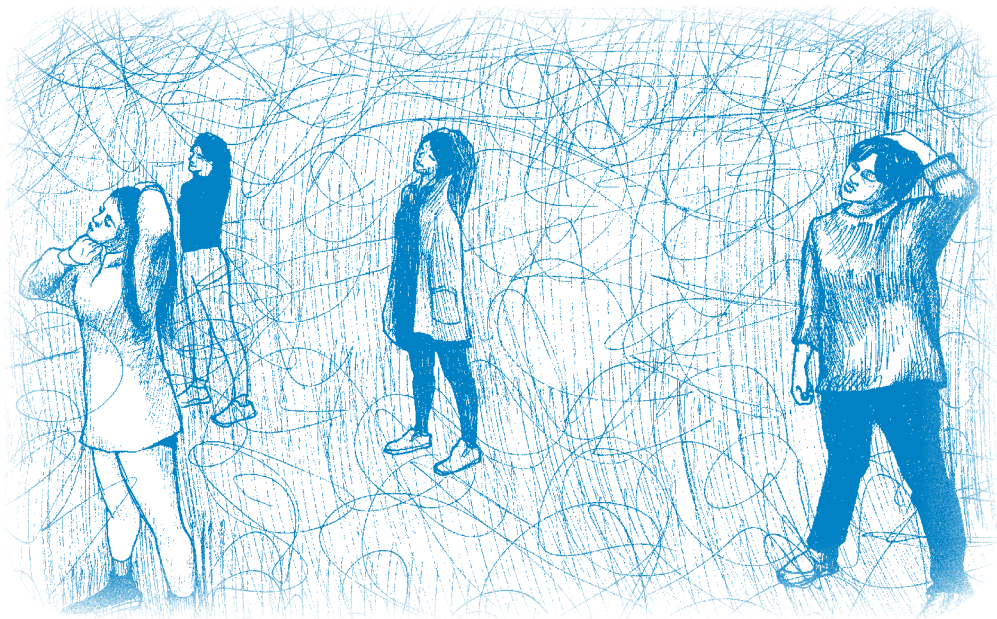
렛잇댄스-춤을 추는 몸

‘렛잇댄스-춤을 추는 몸’은 춤을 통해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는 몸에 대한 고찰 프로젝트이다. 몸의 테크닉에 대하여 기술했던 마르셀 모스의 말의 빌어 표현하자면 각 사회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방식들을 ‘몸의 테크닉’이라고 표현한다. 모스에 의하면, ‘몸의 테크닉’은 우리가 아직 개념화하지 못한 미지의 것이며 학문의 변방에 위치한 ‘잡동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몸의 테크닉’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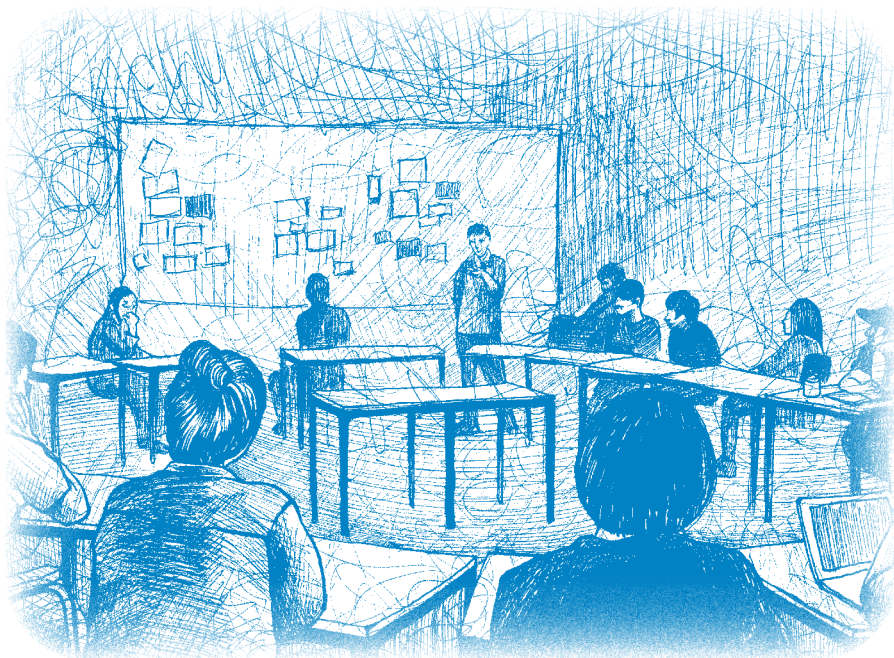
“나는, 예컨대 걷기나 수영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모든 종류의 것들이 정해진 사회들에 특유하다는 것을, 히말라야인들은 우리처럼 걷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세대가 현재 세대처럼 걷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마르셀 모스는 예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문화의 ‘세부-deta’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렛잇댄스는 “또한 몸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다. “누군가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은 그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전승되고 축적된 다양한 춤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전승된 몸’을 개별적인 몸 안에 각인해 넣음으로써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문화적인 몸들을 전수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전수된 ‘몸의 형식’에 맞춰 우리의 몸을 변형시킨다. 춤은 사회가 개인의 몸을 소유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므로 같은 춤을 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서로 닮아간다. 춤은 그렇게 ‘몸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침묵하는 실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문화적인 몸을 개인적인 몸에 이식하는 춤은 ‘몸의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장르이다. 렛잇댄스는 근대적(서구적)과 학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비언어적인 아시아인들의 몸의 훈육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몸이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이의 수중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이라는 도구의 매우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무지하기만 하다. 우리는 단지 특정 문화의 필요조건 안에서, 항상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몸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선언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가능성이 얼마나 협착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몸의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의

문화적인 몸이 얼마나 많이 상실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낯설고 이국적인 몸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몸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이해가 있다.
그런 이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몸의
이해’이며, 현재 우리의 지적인 의식이 가장
놓치기 쉬운 이해의 방식이다. 이러한 ‘몸의
이해’는 우리에게 낯선 믿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몸의 훈육이란 정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조차도 몸은 ‘예’라고 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體와 공동체



공동체의 문화 생성과 진화 과정에서 소속, 자리, 교류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공동체 내 개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통찰과 공동체에 집중하여 ‘나의 존재’, ‘나에게 적합한 자리’,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워크숍이다. 사회적인 나와 관계적인 나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써 타자와 나의 움직임의 텐션을 경험한다.



프로젝트 기획



백수남실수녀 가짜회사

고미랑 김진아 오린지 이유진

백수남실수녀(백만원대수당을 받는 남자와 실업수당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로
현 세대의 청년들이 겪는 보통의 문제로 공감대를 찾아 보고자
만들어졌다.

100번도 넘는 이력서를 내고, 내가 아닌 나를 읊어대야 하는
사회에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좌절한 백수남실수녀가 이력서를
쓰다 지쳐 회사를 차렸다. 채용공고를 통해 기존 회사에서 실연당한
이력서를 받아, 그들을 전원 모두 합격 시킨 이유는, 기존 회사가 가진
조직과 구조를 비웃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사의 모습을 통하여
백수남실수녀가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백수남실수녀 진행 프로그램 내용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속 노래 가사 ‘이미 늦었다 말하지 마요 나는 아직 숨을 쉬어요. 가망
없다고 하지 마요 무너진 건물 당신 발 밑 아래 난 살아 있죠 숨쉬고
있죠 이미 터진 좁은 공간에 나는 아직 살아 있죠 무너진 건물 당신
발 밑...’은 우리의 상황과 백수남실수녀의 가짜 회사 공간인 (구)서울
농대 폐허 공간에 잘 어우러지는 이야기였다.

(구)서울 농대에서 우리의 소리가 울려, 사람들이 마음껏
공감하고 울림을 느끼길 바라는 기대감과 두근거림으로 2015년 6월
20일에 가짜회사가 문을 열었다.

현실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은 이력서를 통해 모여든
가짜회사에 출근한 사람들은 실제 구직과정에 있는 친구, 자발적
백수, 현재 취업 중이지만 이직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세요? 왜 취업하시려고
하나요?”의 질문을 묻는 서로를 알아가는 면접의 시간, 컴퓨터 앞에

거북이 자세로 앉아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는 근무시간 말고, 맘과 몸을 열어 춤으로 승화하는 ‘우리의 근무가 춤이 된다면’이라는 커뮤니티 춤을 추는 근무시간, 건물 지하에 차린 탕비실에서 다큐를 보며 우리네 삶을 토로 하였던 ‘탕비실 뗏담화’, 푸른지대 숲길을 걸었던 산책의 시간을 끝으로 하루 근무를 마쳤다.

백수남실수녀 가짜회사 프로젝트는, 반복되는 취업에서 우리의 모습이 스펙으로 뒤덮여져 우리를 잃어가고, 수많은 낙방에 좌절하는 것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퍼포먼스였고,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이었다. 또한 이날 가짜회사에서 ‘다시 쓰는 자기소개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백수남실수녀에게 바치는 ‘우리의 다시 쓰는 자기소개서’이다.

























돈 워리 꿈사리 대출

김가화

사람이 어떠한 문제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우는 일을 고민이라고 한다. 고민거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에서 오는 고민이 가장 많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을 안고 살아가는 반면,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진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 아무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어두울까. 사람들은 그토록 돈 때문에 고민할까. 어쩌면 1%의 끝없는 탐욕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돈 때문에 고민에 빠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가지 있게 사용하자는 것, 그것이 <돈 워리 꿈사리 대출>의 시작점이다. 선한 의도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든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린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신나는 음악으로 TV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낸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이제는 아는 사람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각박해진 한국 땅에 <돈 워리 꿈사리 대출> 돈의 씨앗을 뿌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자는 돈이 아닌 채무자들이 기꺼이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받기로.

2015년 12월, 온라인 맘카페에 ‘푼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무작정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부터 개인 속사정까지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총 11명에게 연락을 받았다.

‘영업직인데 월급이 몇 달 뺏구났다.’

‘작은아이 어린이집 원비를 정산해야 한다’

‘남편이 다쳐 생활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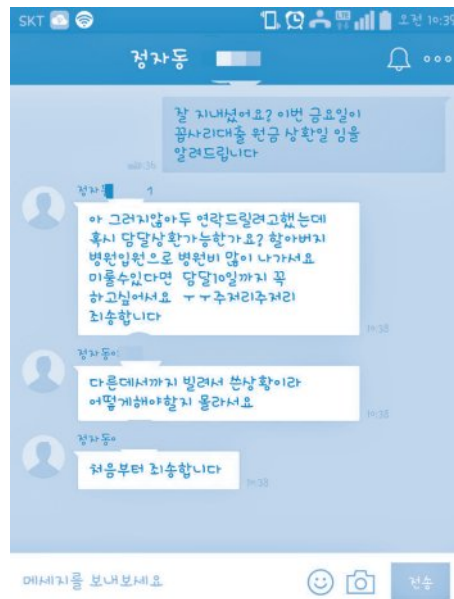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꼭 빌리고 싶다.’

등의 사연이 이어졌다.

그 중 5명을 만나 생판 모르는 남. 아니 5명의 ‘님’에게 돈의 씨앗을 뿌렸다.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 질지, 어떤 울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돈을 회수하는 날이 되었다. 회수전 날 걱정이 되어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사흘 전 한 대출자로부터 만나기로 한 날짜에 못 온다는 연락이 왔고, 하루 전 날 두 분은 연락이 안됐다.

돈이란 건 정말 앓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싶었을 때, 약속시간 안에 직접 찾아와 이자로 약속하셨던 아이 옷과 대출금을 상환 받았다. 소화제처럼 뺨 뚫리는 예능으로, 이런 저런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즐거움으로 시작해 뭔가 찻찻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다큐로 «돈 위리 꿈사리대출» 프로젝트는 58.3%의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





포스트웨딩 The Post-Wedding

박미정 박지현 신성은

프로젝트 기획 당시 29살 동갑내기 그리고 결혼 준비 중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난 3명의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그대로 프로젝트에 반영하기로 해보았다. 기존의 결혼식과 현재 그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과 개성 넘치는 결혼식을 만들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문화기획 활동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물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단지 결혼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동산 문제, 진로문제, 부모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보기로 했고, 이런 뜻에 공감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찾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로 결혼식을 진행할 신랑 신부를 찾았고 약 50일동안 그분들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했다.

물론 여러 가지 난항이 참 많았다. 먼저 공간을 찾는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프로젝트의 큰 고민이었다. 공공 공간과, 카페 등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든 곳을 알아보았지만 공공 공간은 결혼식 같은 개인적인 행사에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결국 공공 공간을 쓸 수가 없었다. 카페는 대관료가 우리의 예산에 비해 과했고, 웨딩홀로 쓰기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많았다. 좋은 공간을 찾고자 했던 우리는 결국 신랑&신부가 다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교회 예배당을 웨딩 홀로 쓸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진작가, 웨딩홀 데코, 헤어&메이크업 등 여러 방면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과 예산 부족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겨우겨우 부탁하며

급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결혼식 날에는 의도치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헤어아티스트가 신부의 머리를 만지는 중에 신부가 열펌기구에 이마를 데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깊이 않은 상처였지만 결혼식을 진행하는 신부의 이마에 흉터가 생긴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끝까지 망심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거쳐 우리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 되었고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미소와 정말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만족을 주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각자의 결혼을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식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 줄 수 있었다. 비록 우리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를 다 바꿀 수 있을만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결혼 관련 네트워크를 충분히 아카이빙 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거품 없는 결혼식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한 방식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생겨났던데, 허례허식이라고 불리는 결혼식 문화가 계속해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청년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관

백지원

이런 개관은 ‘개관연구소’라 불리는 연구소에서 ‘개관’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컨셉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주제인 ‘개관’은 반려견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은 ‘이동성’이 있는, 즉 pop-up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반려견의 생활반경 내에서 자유롭고 쉽게 구성과 해체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반려견의 사회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견주가 부담해야 하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수고스럽게 ‘강아지놀이터, 애견카페 등’의 고정적이고 인위적인 공간을 찾아가는 대신 ‘동네’에서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들과 교류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개관’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애견인구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도시 속 공동체를 회복하며 애견과 인간의 심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적정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구상단계에서 기획한 내용을 축소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기획한 강아지주소록, 강아지명함, 맞춤형 펜스, 개똥봉투 이 모두를 원하는 수준만큼 디테일하게 진행하기에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한계가 있었다. 기간이나 예산에 맞게 파일럿 수준으로 수정해서 진행할 수 있었고 그 필요성, 실현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다. 다만, 초기 컨셉 수정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일처리가 진행되었다면, 10월 중에 한 번, 11월 중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더 따뜻할 때 개관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초기 컨셉을 수정하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은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애견문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지역에서 애견인구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반적인 애견네트워크를 실험해보고 그 밀도를 높였어야 했다. 이 점을 깨달은 지점은 바로, 용인시청과의 통화였다. 지역 내에서 ‘이런 개판’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목적과 행사의 진행내용, 후속처리과정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늦게나마 지역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청년문화창작소에서 일반적인 애견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개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목줄 없이 뛰노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같은 의견을 표한 동탄 강아지 모임 ‘디디클럽’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펜스 관련하여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기존 수원의 애견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줄 없는 공간’에 대해 각자 그린 구체적 상에 크게 차이가 나서 아쉬웠다. ‘이런 개판’은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이 배타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단계적으로 그 크기나 개념을 확장시켜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참여인원은 2회에 약 50마리가 가까이 되었고 대부분 서둔동, 탐동 등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었고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수애모(수원 애견 모임), 인스타그램(@gaepan_like_this) 등에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조회수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수원, 안양, 화성, 동탄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참여한 이들은 실제로 2회는 언제 진행되는지, 앞으로 계속 해줄 수 있는지 물었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대안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지속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호응도를 비롯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약			
응가			
기분	안전	건강	개성
남아갈 듯 신체해요	마음놓고 싸도 돼	참금 품	안애 쓰러면 없다.
년 월 일			
<p>책번시 주의사항</p> <p>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담아주세요.</p> <p>다 쓴 봉투는 휴지통에 넣어주세요.</p> <p>모두가 즐거운 산책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p>			

개판오분전





조금 다른 운동회

이충현 김혜진 (조금다른팀)

우리 모두는 서로와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남과 같아지려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름’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도 이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시설물들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는 시선에도 문제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열악한 처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조금다른’ 팀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알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직접 ‘공감’해 볼 수 있다면 장애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고 진부한 체험에 그치지 않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한계를 느낀 ‘조금다른운동회’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시선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방식의 스포츠게임을 즐겨보는 운동회를 기획했다. 색다르고 재미있는 운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동회는 기존 장애인 스포츠 종목 및 ‘조금다른’ 팀에서 새로 개발한 종목에 비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종목은 시각장애인들이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는 ‘골볼’, 안대를 쓰고 점자판을 읽고 색판을 뒤집는 ‘점자색판뒤집기’, 각기 다른 신체조건에서 공을 던지고 피하는 ‘조금다른피구’, 각각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구기종목 ‘링크볼’, 운동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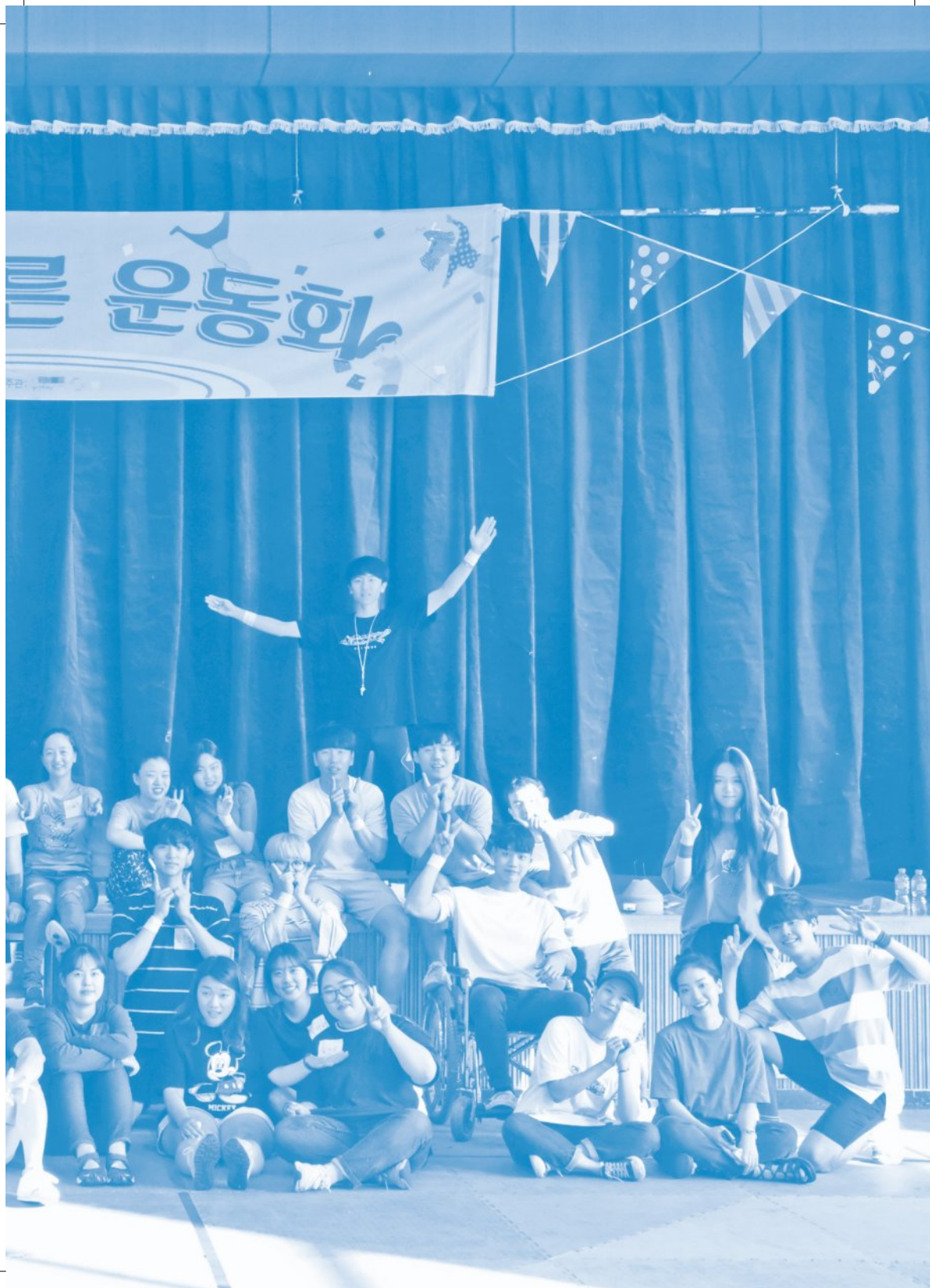
백미 장애물달리기를 변형한 ‘이런저RUN’, 하지 장애인들을 위한
앉아서 하는 배구 ‘좌식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금다른운동회는 현재까지 경기 일대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그리고 자체적으로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실시된 바 있는 조금다른운동회는 설문조사 결과 18세
이하 참가자들에서 88.7%, 18세 이상 참가자들에서 5점 만점에 4.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시행사례는 경기일보, 중부일보와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메인 등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조금다른’팀은 현재는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인
조금다른운동회에 집중하고 있으나 추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기획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조금 다른 세상을 위한 그들의 조금 다른
움직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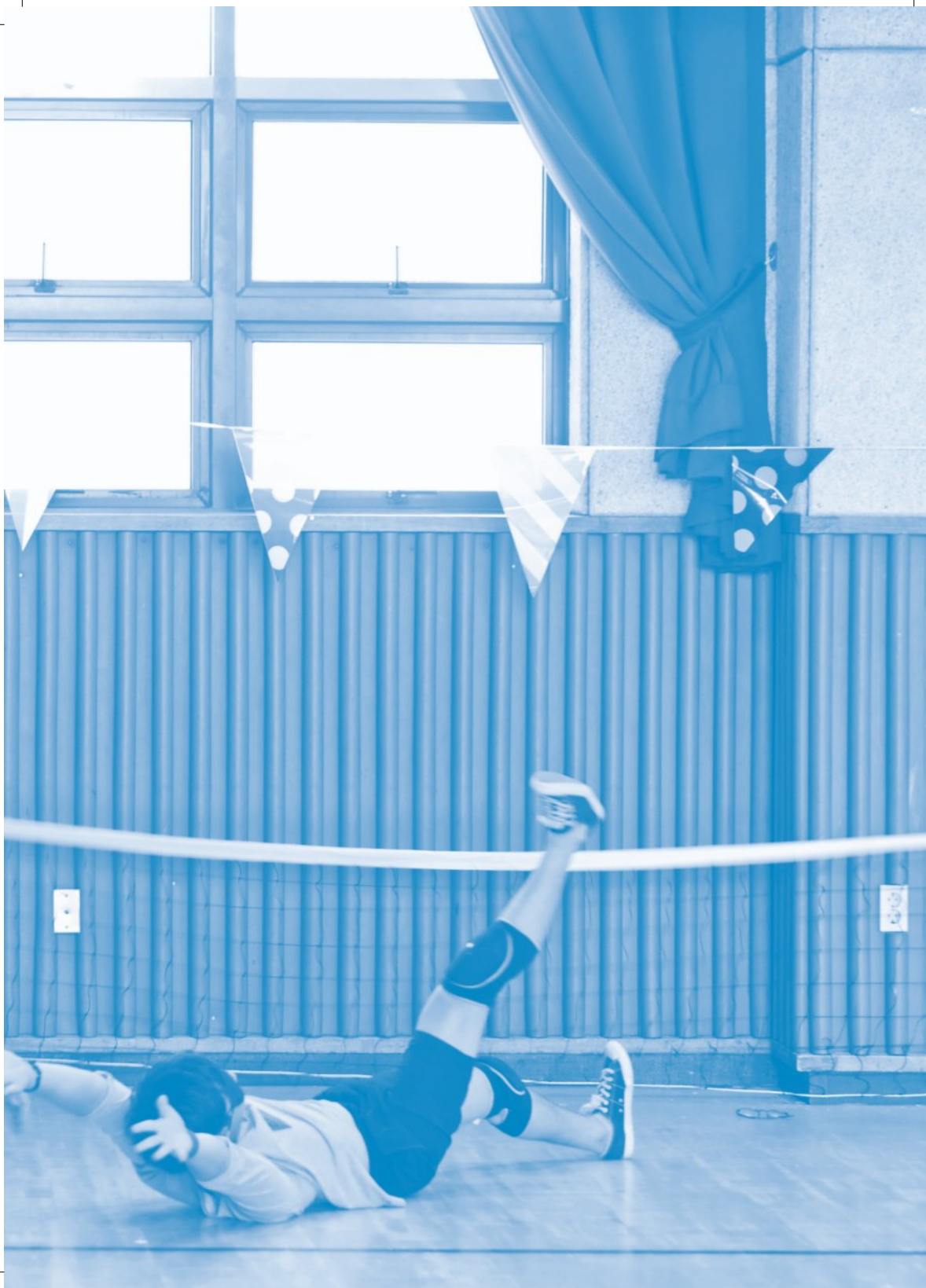
















아! 랑땅

잉앵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 중 잉앵은 우연히 ‘랑땅’이라는 마을과 마주한다.

‘랑땅’은 2년전 큰 지진피해가 있었던 마을이다. 하지만 지진피해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지진 이후 ‘랑땅’ 마을 복구를 위한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지만, 이는 일부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 현재 폐허가 된 ‘랑땅’ 마을은 대부분 몸이 성치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름다운 ‘랑땅’과 빛나는 ‘랑땅마을 사람들’을 여행하며 잉앵은 결심한다. 그곳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잊지 않기로. 어떻게든 그들을 돕기로.

어떻게 ‘랑땅’을 알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 끝에 잉앵은 «우주랑땅파티»라는 네트워크파티를 기획한다.

«우주랑땅파티»는 ‘랑땅’에 가보고 싶은 사람, ‘랑땅’에 다녀온 사람들이 가볍게 모여 ‘랑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파티다. 랑땅의, 랑땅에 의한, 랑땅을 위한 파티가 되고자 했던 우주랑땅파티에서 잉앵은 무엇보다 자신이 본 ‘랑땅’을 알리고 그 온도를 나누고 싶었다. 취지를 듣고 흔쾌히 자리해주신 네팔 분들의 도움으로 네팔의 술과 음식이 준비 되었고, 파티는 네팔의 향과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파티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직접 촬영하신 ‘랑땅’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함께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서로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아름다웠던 ‘랑땅’을 추억하며 사람들은 이야기 꽃을 피웠다. 파티에서는 자율기부의 형태로 ‘랑땅’을 위해 쓰일 기부금을 모금했다.



그리고 약 2주 뒤, 사람들이 건네준 소중한 마음들과 기부금 총 1,531,333원을 짊어지고 잉앵은 다시 네팔 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 때 그 결심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부 받은 돈으로 잉앵은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품을 구매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조차 없어 크고 작은 생활병에 고생하시는 ‘랑땅’ 마을 사람들을 위해 70kg에 달하는 의약품과 의료용품들이 마련되었다. 이를 구입하고 운반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국 분들, 네팔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며칠 간의 트레킹 끝에 잉앵은 랑땅에 다시 발을 디뎠다. 의약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시설이 있는 랑땅의 이웃마을, 문두의 헬스포스트 [by KGLS]에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다시 찾아간 그곳에서 잉앵은 한국의 온도를 ‘랑땅’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잉앵의 뜨거운 열정과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리고 따뜻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다.

‘랑땅’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킨 잉앵은 3주 20여 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랑땅’에서 만들어진 야크치즈를 양손 가득 들고, 그는 여전히 ‘랑땅’을 추억하며 ‘랑땅’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Be Post
of Med

To Mundu
Health Po

Offi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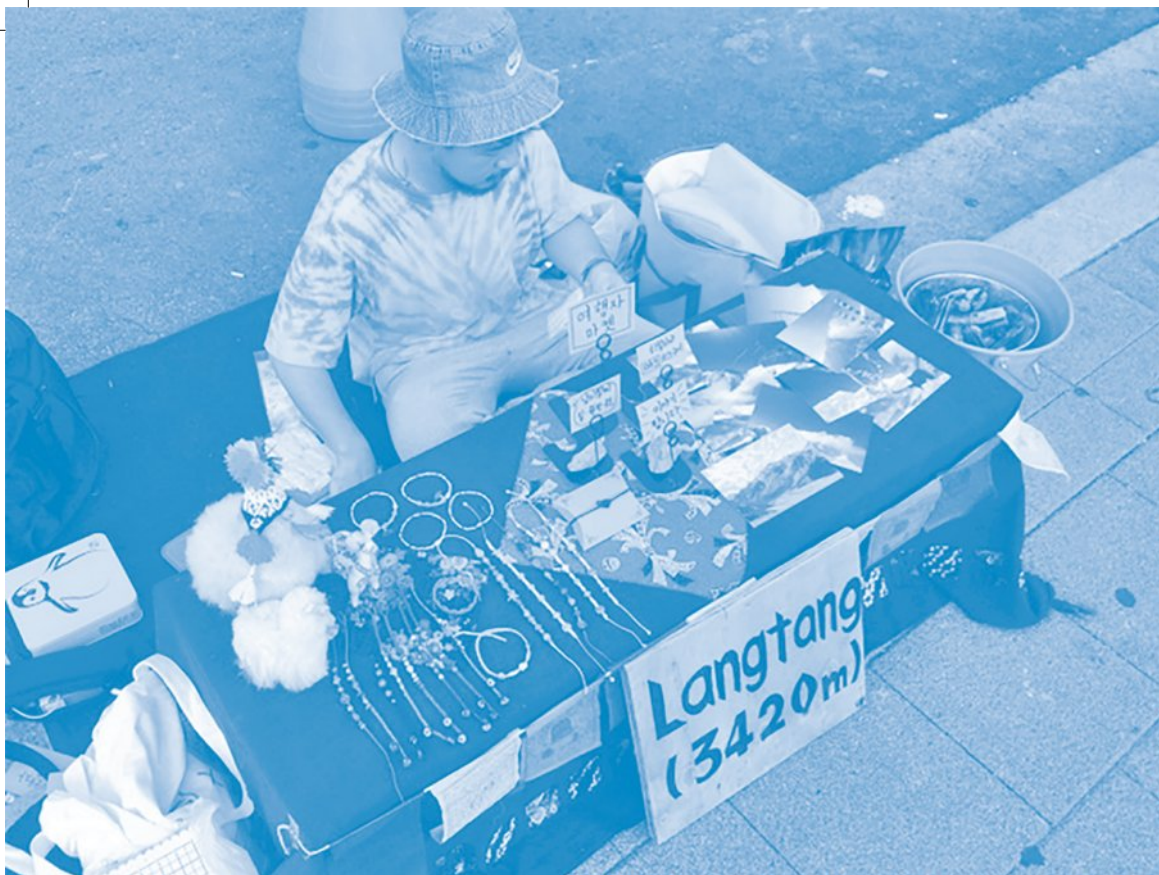
icine

Village

Post!

Would you Langtang!

> U < Pole
n Pole









부족부족캠프

이조은 정하원 술가 이도희 (부족장)

우리 청년들은 ‘노(으)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포기과 절망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절망에는 ‘부족(不足)’이라는 키워드가 후벼파듯 관통하고 있었다. 집부족, 외모부족, 스펙부족, 돈부족, 자신감부족, 학점부족 등등.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가장 저렴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먹고 싸구려 옷을 걸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포기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런 힘겨운 삶이 청년들의 노력 문제로만 치부되었을 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왜 우리는 내 탓으로 돌리는 자조적인 단어를 남발하는 걸까.

오늘도 부족함을 과열된 노력으로 덮기 위해 청년들은 힘을 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은 사치, 연애하는 것은 사치, 결혼하는 것은 더 사치, 여행하는 건 불필요한 것이라며 이야기하고 있다. 부족장들은 더 이상 청년들이 느끼는 절망과 좌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길, 부족함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즐기길 바랐다. 부족(不足)한 청년들이 모여 ‘부족(部族)’을 만들기로 했다. 부족한 부족의 구성원이 되어 부족함에 대해 암울하고 우울한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족한 청년들을 모아 1박2일 부족부족 캠프를 진행했다. 10%의 진지함과 90%의 즐거움으로 캠프를 만들어갔다.

부족부족 캠프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청년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열정적으로 즐겼다. 없는 재료로 집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든 아늑한 공간에 빠지기도 했다. 신나게 몸을 흔들며 아프리카 댄스를 추면서 부족했던 자신감과 뽐뽐함을 내보였다. 조용하게 소문처럼 숙덕거리던 성적 지식에 대해서도 대담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그렇게 캠프의 밤은 청년들의 마침내 터진 이야기들로 뜨겁게 흘러갔다.

캠프는 여유로웠고 풍족했으며, 뽀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부족한 시간 안에서 급하게 오고 갔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에나 놓고
앉고 산책을 하며 천천히 시간을 보냈다. 물론 부족한 부족인지라
캠프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성소수자에게 배려심있는 성토크가
진행되지 못했고, 채식주의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부족부족 캠프는 앞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청년들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흥 넘치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모락, 모락, 모락

박지수

가족의 역사, 엄마가 기억하는 엄마의 엄마가 만든 요리.

엄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데 보냈다. 해보지도 않았던 음식이라도 가족이 좋아하면 만들었다. 낮은 환경으로 시집 온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집안의 많은 요리를 배웠고 시간이 흘러 엄마의 손맛이 되었다. 20-30대인 우리에게겐 외할머니(혹은 친할머니), 우리의 엄마에겐 엄마의 엄마인 분들의 흔하고 당연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였다.

모락모락모락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를 거듭해오면서 당연하게 흘러갔을 할머니들의 요리하는 삶과 엄마들의 요리하는 삶을 당연하게 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는 했어야 할 희생의 시간이 담겨있고, 마음에 담겨있는 여자들의 삶과 요리가 가족을 만들어준 중요한 매개체라 생각했다. 기억 속에는 묻혀 있는, 사소하게 흘러간 시간들을 다시 되새기고 기록하는 하나의 역사로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 요리를 할지도 모를 우리 세대까지도. (물론 요리를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가족의 집밥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여자들의 손맛과 알게 모르게 스며든 삶이 세대를 거듭했고, 여자를 통해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족 안에서도 여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의 ‘끈끈한’ 관계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외할머니와 엄마, 우리에게 담겨있는 보이지않는 끈끈한 이야기와 맛을 기록했다.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집밥들이 나왔다. 어찌보면 평범하기도 했다. 엄마들은 음식을 이야기하고 잠깐잠깐 흘러가듯 살아왔던 모습을 이야기했다. 딸들은 엄마와 함께 엄마의 요리를 만들며 맛을 되새기고 모르고 지나갔을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왜

나를 두고 너네끼리 갔냐는 외할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웃기도 하고,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에 글썽이기도 했다. 집안일을 해왔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
안에서 힘겨움과 사랑이라는 마음이 동시에 오고가는 것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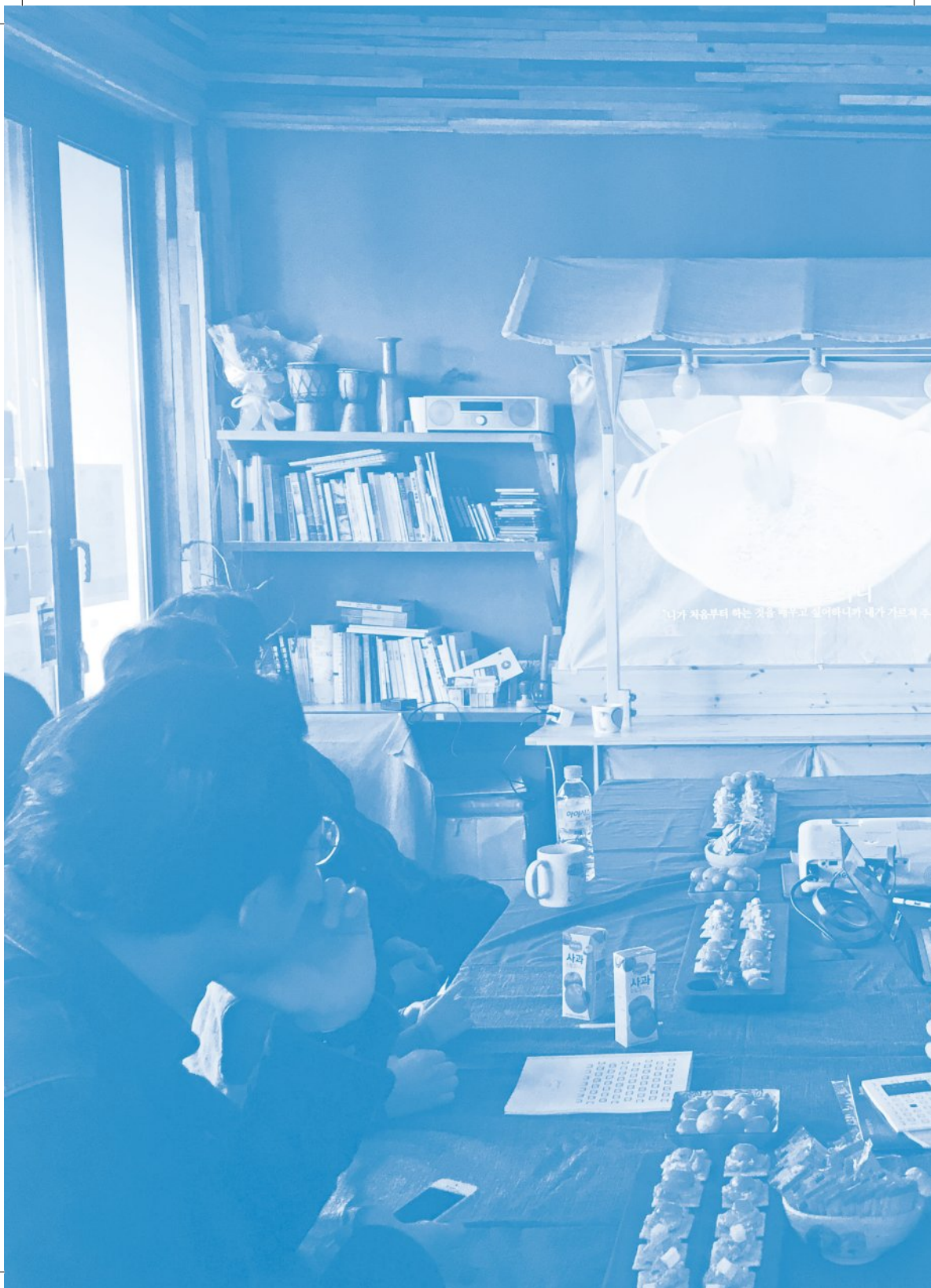
북적북적한 날이 지나가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과 작은
책이 엄마와 딸들에게 잊지 못할 기록물이 되었던 건 분명하다.

한번쯤 우리를 위해 요리한 사람에게 ‘○○의 엄마가 만들어준
요리 중에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는 어떤 거예요?’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 안에서 묵혀있던 오래 전 이야기와 맛과 기억이
되살아날 것이다. 소소하지만 사소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모락모락모락의 기록하기가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가족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













멘토의 말



왜 다사리문화기획 ‘학교’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정석

지순협 대안대학 사무국장

1 부끄럽게 고백하자면, 난 아직 ‘문화기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축제나 캠프 등의 이벤트의 계획 및 실행, 도시나 지역을 되살리는 다양한 시도, 다양한 방식의 문화 ‘콘텐츠’의 기획 등으로 하나씩 구분지어 생각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개별적 사례들의 합을 ‘문화기획’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여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이는 ‘문화’라는 개념의 높은 추상성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문화이론가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삶의 총체적 양식(the whole way of life)’로 정의했던 ‘문화’ 개념의 맥락으로 이해해보자면, ‘총체적’이라는 의미만큼이나 품을 수 있는 범위가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 더욱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즉 문화는 다양성을 전제하는 개념인 셈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들이 곧 ‘문화’라는 말과 같게 되어버린다. 이러한 정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2 더군다나, 이러한 다양성의 ‘기획’은 어떠한가? 다양성은 특정한 과정과 설계를 통과하며 ‘육성’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발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며 하염없이 기다려줘야 하는 것일까? 이는 소위 ‘문화적’ 영역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일 것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특정한 답은 없다. 레이몬드 윌리엄스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문화 개념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임을 밝히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삶의 육성’이라는 방식으로 이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 안에는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의미와 인간의 문화적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육성’이라는 의미가 함께, 그리고 항상 동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즉 ‘문화’는 명사형의 고정된 이해가 아닌, 동사형의 이해,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누적적으로 겹쳐지며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의미로만 파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불편하게 충돌하여

과열음을 내기도 한다.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주변의 자연적·인공적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숭한 어울림과 부딪힘,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들이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감정들,그리고 그 감정들이 타자와 얹혀 들어가며 또 다른 순간의 출현하는 지속적인 흐름들. 우리는 이러한 순환적 과정을 감히 ‘문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기획’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만약 가능한 것이라면,우리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현장감 넘치는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고,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게끔 하며,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얼마간의 돈과 인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 등을 붙여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한 다음,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느끼게끔 하고 또는 실패의 경험도 쌓도록 하여 ‘문화기획’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하게 하는 것. 어쩌면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련의 프로그램 역시 위와 같이 설계되어 있기도 하다.하지만,과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문화기획’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름 2년의 시간 동안 멘토노릇을 하면서,여기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여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지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4 이 여분은 아마도,위에서 언급했던 ‘자연스러운 성장’과 인위적인 ‘육성’ 사이에 놓인 긴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이를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계된 프로세스를 잘 수행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러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선부르게 대답을 할 수 없으며,심지어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낼 것이다.프로세스의 충실한 ‘수행’과 그 수행자의 ‘자연스러운 성장’ 사이의 간극은 무척이나 넓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은 나름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문화기획을 가르친다는 것은, 특정한 문제발견-해결 모델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행하게끔 하는 테크닉을 익히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그리고 타자의 삶,더 나아가 사회를 성찰하고 서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특정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5 여기에는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다. 당연히, 둘 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뜬금없이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사리문화기획 ‘학교’라는 점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우리들은 모두 갖고 있다. 임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억박지르는 교사, 왕따와 폭력, 그리고 무관심과 널브러짐의 현장. 하지만 그러한 학교의 기억을 걷어내고 생각해보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테크닉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친밀감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공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 서로 애쓰는 공간이 바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야말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질문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사리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 아니라 ‘학교’라고 고집스럽게 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특정한 문화기획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타자, 그리고 사회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자의 자기 언어를 갖게끔 하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 단순하고 일회적인 ‘양성과정’의 수준을 넘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과 멘토들이 모여 때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는 바로 그 장소.

6 물론 지금의 다사리가 이런 공간과 장소가 되어 왔는지는, 나 스스로 반성적으로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굳이 거부감이 드는 ‘학교’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기수를 붙여가며 그 결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조금씩 결과들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점 역시, 다사리문화기획학교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방향 그 자체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다사리에 dasarie’들이 이 ‘학교’에 모여 같이 놀고 즐기고 토론하고 부딪히며 ‘문화기획’의 프로세스 경험과 테크닉을 쌓아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그 과정에 나 또한 미약한 힘을 보태며 많은 배움과 성장을 나눌 것 작정이다.

다 함께 말하고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 다사리

이채관

시월이앤씨 대표이사

와우채문화센터 대표

4년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궁씹거림으로 함께 보낸 세월. 긴장된 얼굴로 면접이라는 형식을 빌려 처음 인사를 나누던 시간이 아스라하다. 처음이라는 불편함이 주는 긴장과 호기심 그리고 막연하지만 신비로운 미래를 짐작하는 총명함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아른거린다. 문화기획+학교라는 울타리에 모여 우리가 보낸 시간들.

막연함이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큰 생각들이 구체적이고 단단한 실천으로 바뀌어 가는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 불편함과 짜증스러움으로 시작해, 그 이유들을 알아가고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듣는 경험들을 설계하는 과정들. 거칠고 무모하지만 사회적 ‘불편함’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실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 도시의 문제에 개입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연대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모습이 전체이면서 부분으로 인식되는 희열을 맞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 깊숙이 침잠해 있는 기억들을 다시 드러내고 살피는 생각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다사리 문화기획 학교는 이런 기대와 바램들이 넘실대는 곳이었다.

서로 의지하고 어깨를 빌려주고 비빌언덕이 되어 함께 꿈꾸는 곳. 짧지만 귀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공간. 큰 나무와 맑은 햇살이 넘실거리는 언덕. 이곳에서 함께 보낸 3년이란 세월은 은혜로운 곳이었다. 살을 맞대고 살지 않지만 염려하고 살피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들. 시간이 지나고 나 느끼는 확연한 연대의 끈.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생각들이 살아나는 곳. 우리는 이곳을 추억할 것이다.

이제, 다사리 학교 4기가 끝났다. 망망한 세상에 던져진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측은한 뒷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세상과 맞대면하며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한다.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우물쭈물 거리는 그 느린 손과 흔들리는 눈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눈물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세상 문제들에 당당히 맞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당당함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세상 재미를 찬찬히 즐기며 살아가는 평온함을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삶이요, 나의 세상이니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면서 지혜를 얻어 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온 세상이 당신들의 것이다. 우리는 항상 ‘끼인 존재 In-Between’이며 우물쭈물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

문화기획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보낸 시간들.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다루고, 자신이 처지를 살피고 생각을 나눈 시간들. 이 모든 것은 사회에 대한 개입이다. 주어진 것으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과정들이다. 당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문제들을 던지고, 그 과정을 유쾌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문화기획자들이다.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유희하는 인간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성찰’의 힘을 믿는 사람들. 항상 의심하고, 온갖 관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잡스럽게 들이대는 도전적 주체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넘쳐, 무언가를 항상 도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화기획자들이다.

나는 ‘긍정성을 강조하라’라는 말은 좋아한다. 비판적 부정성의 지혜들을 배우고, 삶의 실천적 긍정성에 대한 신념을 지닌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기대한다. 규범, 도덕, 질서라는 주어진 규칙들에 항상 의심하고 ‘자기다움’으로 살아가는 유쾌한 존재로서 문화기획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문화기획자. 사회가 지니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긍정적 주체로서의 문화기획자를 상상해 본다.

문화기획자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전문적 ‘직업’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지향하는 가치를 끝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실천적이고, 긍정적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자기의 모습들을 꾸며가는 사람들이다. 살다보면 살아지고, 그 삶속에 온전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청년’ 문화기획자는 긍정적 가능성을 가득 품은 햇살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 햇살에 온몸을 맡겨 하늘의 기운을 품기 바란다.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에서 만나길 기원하다.

2017.11.30.

임재춘

생활적정랩 빼꼼 대표

오늘 마침 4기의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과 수료식이 있었다. 자신들이 수행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 기수의 프로젝트들의 오늘과 같은 순간들이 함께 연상되곤 한다. 매 기수마다 4-5개의 프로젝트가 개인이나 팀별로 진행되었고 멘토로 참여한 2기에서 4기까지 대략 1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것은 있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연한 결과이지만 다사리에서 늘 강조했던 ‘자기다움’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자기다움이 담긴 일을 만드는 것은 통속적으로 양식화된 문화나 예술의 어떤 면들과 거리두기를 시도해 봐야 하는데 이는 자기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의 기획은 의심의 과정을 지나 자기 질문을 담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큰 난관에 부딪친 경우도 부지기수다.

운이 좋게도 나름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이제 기획이 조금 만만해진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개념이나 기획의 이슈, 소재, 재료를 마구 끼워 맞추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다. 눈을 부릅뜬 멘토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가? 아닌가? 그럼 뭐지?’ 하면 고마운 일이고 반대로 의구심이 가득 찬 눈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질문을 받아쳐버리면 희한하게도 그 기획은 다소 활력을 잃게 된다. 왜일까?

다사리에서 이뤄지는 기획은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자의 생각이나 계획은 공유와 다른 이들의 질문을 통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이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기획과 기획서의 기술적인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생명체처럼 기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이다. 기획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료도

찾고,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자기 것을 가져다 대보다 보면 기획자의 바람에 다른 사람의 삶이나 욕망이 얹혀 진다.수가 더해지면 사회의 보편적인 면들과 만나기도 한다.이런 과정은 그 기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는데 이것이 앞서 말한 활력이라고 할 수 있다.기획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일 수 있지만 문화기획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사전이든 사후든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문화적 이해나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개인의 것일 수만은 없다.해서 활력을 얻거나 만드는 시간 자체가 매우 문화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탓에 기획,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기획의 범위나 내용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이것이 문화기획이라고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베이스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화기획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니 당연히 다사리에서 이야기하는,내가 생각하는 문화기획이 전부이고 정답일 리 없다.다만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획과 비평적 세계관이다.다사리 과정이 인문교양 수업과 워크숍,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뤄진 것은 그러한 면을 고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물론 몇 번의 강좌와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의 내면이나 구조를 이해하고 자기 질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이미 빅히스토리 등에 관한 인문지식이나 사유가 익숙하고 훈련된 이들은 주제별 강사나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이후 프로젝트 기획으로 연결되지만 또 많은 친구들은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고 자기 언어라는 표현조차 이해하기 힘들어 하기도 한다.당연한 일이고 수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어떤 언어와 방법으로 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지 늘 고민되는 부분이고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또한 막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복잡 미묘한 일들을 겪게 된다.다른 것은 차치해 두고,팀을 꾸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일을 풀어내는 스타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그것도 기획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고민이다.갈등과 해소,합의,정리 같은 것들이 순환되려면

스스로 문제를 응시하고 불편함을 겪을 시간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다사리는 시기적으로 내 삶의 전환이 되는 시점과 궤를 같이 한다. 출산으로 삶의 양태가 급변하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이전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립기획자로 일의 양이나 시간, 장소 등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기 보다 고용된 삶이 주는 여러 피로감이 내 삶에 그다지 이롭지 않다고 느끼면서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독립기획자지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꾸려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런 와중에 다사리에서 나와는 다른 삶의 지평에 놓여있는 친구들과 문화나 기획, 삶,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다. 실제로 나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사는 현재와 내가 사는 현재가 시기를 공유하고 있을 런지는 몰라도 닳은 것들 투성이었고 무척 흥미로웠다.

다사리 2기에서 4기까지 수업방식이 매 기수마다 조금씩 바뀌었다. 참여하는 친구들이 달라서이기도 하고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도 완성된 기획이라기보다 스스로 관찰과 평가를 통해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문화기획을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들과의 화두라고 했던 자기언어와 비평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한 내연관계에 있는데 경험이 부족할 때 어정쩡한 기획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최소한 다사리는 이 어정쩡함을 견어내고 매끈하게 만들라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나 ‘배움’의 의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도 하나의 기획으로 이리 저리 뒤치락거리며 자기 동력을 만들어 가는 중이지 않을까. 문화현장에 기획자 기근 현상이 오래되었다. 강좌중심의 단발적 프로그램으로, 인력양성 등의 이름을 달고 기획교육이 생길 때도 있지만 늘 그때뿐이어서 사람이 남지 않는다. 정말 바라건대 다사리 문화기획학교가 사람을 남기는 학교로 오래오래 성장하고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문화기획의 간

주성진

문화용역

처음 날이 생생합니다. 네비게이션에 경기상상캠퍼스가 나오지 않아, 찾아오는 길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설레임도 기대도, 또 걱정도 컸습니다. 10년 넘게 남들이 문화기획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왔으니, 나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다른 선생님들처럼 멋지게 가르치진 못할 것 같아. 기대와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오갔습니다.

이제는 네비게이션에 경기상상캠퍼스 뿐 아니라 다사리문화기획학교도 나옵니다. 물론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요. 다사리는 이제 길치인 제가 네비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이 지면은 그 시간에 대한 찬사나 함께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적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간동안 제가 가졌던 고민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 감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문화기획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문화기획이라고 불리는 일’ 자체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그 일을 ‘문화기획’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문화기획자’만큼 부모님께 설명하기 어려운 직업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기획’하면 ‘안기부’와 ‘기조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다고 하더군요. 간첩 사건을 ‘기획’했던 국가안전기획부와, IMF 때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제 아버지를 포함한) 대량해고를 ‘기획’했던 기획조정실 말입니다.

아마도 문화기획이란 말은 안기부와 기조실의 시대에 만들어진 말일 것입니다.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의 문화를 누가 기획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문화기획’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명칭의 모호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화기획’이라고 불리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기획이라고 불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또 문화기획자를 꿈꿉니다.다사리 문화기획학교가 생겼고,점점 더 많은 문화기획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사리에서의 시간 동안,또 유사한 문화기획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과연 문화기획 이라는 것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성격의 일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가르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고,배우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른 일.공통의 정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갈 때쯤 텔레비전에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셰프가 참여자에게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간은 못 배워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의 기대를 받던 경연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던 참여자가 정성 드려 아름다운 요리를 내놓았는데,그만 간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참여자는 “제가 열심히 배워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꼭 간을 맞추겠다.”고 답했고,그때 셰프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간은 못 배운다고.

저도 다사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과정에 참여함에도,당장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또 반대로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모두가 칭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문화기획에도 음식의 ‘간’과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는 고유의 어떤 능력.그냥 타고 나는 ‘문화기획의 절대 간’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그리고 다사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절대 간’이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식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아마도 ‘절대 간’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종원의 간이 절대 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많이 팔기 위해 요리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반아쓰기에 백점 맞은 아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식구들과 즐겁게 모여앉아 하룻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며 요리합니다. 늘 같은 간을 쓰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엔 평소보다 더 짜고 더 맵게 간을 하고, 아내가 과음한 다음날 아침엔 평소보다 심심한 간을 씁니다. 아마 백종원도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거나, 부모님께 당뇨가 생긴다면 그의 식당 레시피와는 다른 간으로 식사를 준비하겠지요.

마찬가지로 문화기획의 절대 간이라는 것도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가장 유명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려고 할 때나 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은 요리에서가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기획의 ‘간’은 ‘무엇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왜 만드는가? 어떻게 만드는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다사리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문화기획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문화기획의 간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편의점 벽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반려견과 놀 곳을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놀 곳을 잃어버린 어른이들에 대한 관심, 커뮤니티가 사라진 마을 주민들에 대한 관심, 결혼의 과정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 대한 관심,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음식에 대한 관심... 다양한 관심들이 다사리에서 프로젝트가 되고 그들에게 새롭게 디자인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사리 2기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제 소개를 하던 날, 저는 다사리 친구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저를 소개하면서, 문화기획이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는 질문에 대해 저 또한 그 답을 찾고자 함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남아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기획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담아 가치 있는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기획에 절대 간이 없듯, 절대 정의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양하듯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것입니다. 계속 다사리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화기획’은 무엇입니까?

다사리와 다사리 이후





다사리를 마치고

김유진

다사리 1기 수료생

벌써 1년.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
지원하기 전이 생각납니다. 저는
아마 그 시기 즈음부터 실제적인
문화기획 현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문화재단
주최의 이틀짜리 프로그램
‘피어라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와
예술, 커뮤니티에 대한 그 갈증이
아주 조금은 해소 되었을 무렵에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죠.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었던 문화기획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접수
마감일, 여수로 여행을 떠나는 기차
칸에서 급하게 신청서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여행 내내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했었고,
그래서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접수
과정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커리큘럼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었죠. 과연 그것을
소화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사리기획학교는
문화예술, 기획에 대해 머릿속
생각만으로 가득하던 내게 실천의
영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과도
같이 느껴졌고, 문화라는, 그리고
기획이라는 단어의 높은 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모든 커리큘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문화기획에 대한 신념 혹은 관념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풀어 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은 문화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생각하기, 문화적으로 생활하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그리고 대체 문화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문이 깊어졌다가 해소되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화라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의 과정이 더해갈수록 문화기획에 대한 열정이 깊어가는 다사리 식구들을 보면서, 중간 중간 회의감에 빠져 든 적도 있죠. 나에게는 과연 다사리 식구들만큼의 열정이 있는 것인지, 내가 문화기획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현재 나에게 정말 즐거운 일인지 각종 잡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사리를 지나 변화된 건 아마도 그 지점이지 않을까요?

다사리, 새로운 ‘판’으로의 첫 걸음

백지원

다사리 2기 수료생

저에게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판의 이동, 지각변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문화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사리’가 많은 도움이 될 거야.’라는 말을 듣고 다사리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는 ‘판’이 변할 정도로 큰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제가 있었던 곳을 어떤 ‘판’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판’, 다사리’판’으로 넘어오면서 제 세계는 지각변동을 겪었어요.

다사리 수업에서 ‘OOO이 이 사회에 꼭 있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당연한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 규율과 같은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목공워크숍을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다사리’판’에서 적응해가는 일은 청년문화기획자가 되어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이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기획해나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해요. ‘지극히 편협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지극히 편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했어요. 아주 작게는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스스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부터 왜 내가 이 기획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내는
 것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되물어야
 했으니까요. 이때 다사리 2,3기
 동기들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어요.
 늦은 저녁까지 남아서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C.O.P 활동도 하고
 서로의 기획이나 고민을 스스럼없이
 나누었고 덕분에 매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덕에 서툴고 어설픈 저도 어렵지
 않게 이 ‘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서투른 것을 흉으로
 보지 않고 갈등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분위기에 있을 수 있어서 배울
 것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이기 때문에 동기나
 멘토님에게도 가족처럼 애뜻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다사리 동안에도
 즐거웠고 졸업을 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요.

다사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화기획(자)란 무엇일까’, ‘왜

문화기획자가 되어야 하나’는 질문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만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다사리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이제 다사리‘판’을 졸업하고 문화‘판’에
 다가가고 있는데 다사리 덕에
 두렵기보다는 든든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다사리가 저처럼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다들 감사했습니다.

후기

이충현

다사리 3기 수료생

다사리문화기획학교 후기를 부탁 받았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기도 했고 A4반장 정도면 써 볼만 하겠다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런데 의외로 다사리에서의 8개월이 글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A4반장에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 싶다. 이 글을 쓰며 나는 다사리에서 8개월 동안 뭘 얻었을까 다시금 고민해보게 되었다.

멘토님들의 주옥 같은 명언들과 재밌있었던 강의들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전화해도 주옥 같은 피드백을 해주실 멘토님들의 연락처는 얻었다. 여기서 항상 생산적이고 필요한 대화들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웃고 떠들며 뭔가를 상상하고 벌려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다.

문화기획자로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다사리에서 성장시킨 조금다른운동회라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실행 중이다. 모든 걸 다 얻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나를 괜찮지 않나 싶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라 그런지 맛있는 것도 잘 준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다. 처음 들었던 것들과는 달랐던 예산과 일정,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길었던 방학 기간 등등 초반 기수였던 만큼 시스템이 잘 잡혀있지 않았다. 공간 자체는 크고 좋지만 외진 곳에 있어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도 아쉬웠다.

다사리를 수료한 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내가 다사리에 갈 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도 정말 아쉽다. 다사리 수료 이후 소수의 사람들만 다사리 공간에 다시 방문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통해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길 진심으로 바라며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데에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수렴 되었으면 한다.

다사리가 나 외에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라며, 다사리문화기획학교 화이팅:)

특별한 한 해, 소중한 경험

이조은

다사리 4기 수료생

코끝을 때리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얼굴이 시리고 입김이 나오는 겨울이 올 때마다 이번 한 해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특별한 해였던 것 같다. 가족, 친척 집을 벗어나 자취를 하게 되면서 주거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다양한 삶을 직접 만났고 상상만 하던 것을 저질렀다. 문집에 실려서 두고두고 읽힐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나 부담을 느꼈지만, 약 7개월 동안 다사리를 다닌 느낌을 정리하면서 가볍게 적어보려 한다.

처음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알게 되었을 때 지원을 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 지순협에 다니면서 서울-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보다 내가 정말 문화기획에 관심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기획에 꾸준히 관심은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문화기획에 대한 것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느꼈고, ‘한 번 해보지 뭐. 아님 말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다사리에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금방 좋아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상과 동 떨어진 거창한 문화기획만을 떠올렸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문화기획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나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느꼈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문화기획이 중요하고, 그런 진실한 힘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관점으로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저질러지는(?) 것 같다. 나의 일상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기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사리에서 보낸 시간들은 모두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지만, ‘데이터의 맛’ 랩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에게 ‘부족부족캠프’는 첫(!)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그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나와 청년들의 부족한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부족부족캠프로 실현되는 과정이 신기하고 짜릿했다. 놓친 부분도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 동료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고,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과 일들과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느긋하고 느린 나의 한결같은 놀라기도 했다.

다사리에 다니길 잘했다고 느낀 이유는 또 있는데, 어찌면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다. 바로 다사리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다사리 4기 분들, 멘토 선생님들, 강의해주신 선생님들, 다사리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삶을 만나고 계속

지내고 싶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 같아 좋다. 부랴부랴 챙겨서 수원 가는 길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아주 가-끔 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즐거웠던 것 같다. 다사리 과정도 끝나서 수원 갈 일도 없고, 무엇보다 다사리 4기 분들과 자주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쉽고 조금 슬프다. 말이 늦게 터져서(?) 이제 뭔가 해볼까 하는데 끝난 느낌이다. 다사리가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의 이점을 잘 살려서 다른 청년 혹은 단체들과 함께 재미난 것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여전히 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에서 뭘 하든,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다사리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툭툭 나올 것 같다. 다사리와는 안녕이지만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길! 히힛.

삶은 놀이... 여도 관찰을까?

강정훈

다사리 언감생심 수료생

‘문화’ 그리고 ‘기획’이라는 간지나는 단어가 결합된 ‘문화기획’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가지고 참여한 다사리 야학. 늦가을로 접어드는 11월 초, 일곱 번째 강사로 오신 DRP 대표 박찬국 선생님의 《몸빵의 문화기획》편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야학에서 처음 뵈는 박찬국 선생님은 나이(연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풍모를 지니고 계셨다. 흥미가 생긴다. 프린트물로 배부된 보충자료(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 탁월한 조어력에 대한 기자의 언급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 중에 정말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았고 (요즘 급식체의 조상?) 강의에서도 다수 소개되었다.

박찬국 선생님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 하겠다고 하며 칠판에 키워드를 적었는데, 그것은 ‘듣보잡스킬’과 ‘탈서울’이었다.

처음 풀어간 이야기는 ‘영광굴비창고’에 대한 것이었다. 사진 속의 허름한 창고 모습은 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거기에서 역사와 문화를 읽어 내었다. 그 곳에서 수많은 삶들이 얹혀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나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이곳이 “재미있다”고 했다. 재미란 호기심/궁금증/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뭐지?’,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감추어진 것에 대한 접근 시도이며,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뻘한 것, 껍데기만 있는 것=은금방 질린다고 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떤지 자문하며 혼자 뜨끔거리기도 했다.

두 번째는 DRP에서 했던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선생님은 삶은 ‘놀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말하는 ‘여가’ 개념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과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요즘, 거의 문명진단적 언급이 아닌가 싶다.) 작당모의/시도라고 하면서, DRP의 크고 작은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면서 삶 자체를 횡단하며 살자고 했고, 선을 넘고 금기를 범하자고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움찔하고, 신호등에 의지했던 습관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다. 주변보다는 위를 주시하는 현대 사회의 상승지향 수직적 패러다임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그것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그램에 매달리지 말자, 삶의 변화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온다고 했다. 인생에서 ‘세렌디피티’의 중요성을 조금 느껴본 적이 있는 나로서는 많이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다사리아학을 만난 것도 세렌디피티?) 이벤트 보다는 차라리 인프라/場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했다. 공유지, 암묵지, 자율, 몸뽕... 이런 화두들이 그 곳에서 서식한다. 결론적으로 ‘존재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생활에 매몰되지 않는 생활’을 하자고 했다.

“삶은 놀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삶은 놀이여도 괜찮을까?’ 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뭔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죄스러운 느낌적인 느낌이 내 안팎을 둘러싸고 있다. ‘먹고사니즘’에 빠져 움짱달씩 못하는 나를 포함한 현대인에게 박찬국 선생님이 던진 화두, 그리고 그분의 ‘몸뽕’은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선생님이 첫머리에 ‘듣보잡스킬’이라고 소개했던 이유도, 삶은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천하는 용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단지 문화를 삶의 장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이지 않을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박찬국
선생님과 다사리 야학에 고마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고미랑 ~~~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졸업한지 2년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 다사리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 기분은 뭐지?

김가화 ~~~ 다사리를 만난 건 운명이었을까?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할까?
어떻게 살아가야하지?
그 때 운명처럼 만난 다사리.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은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물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파업으로 듣지 못하는 친구의 목소리.
이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착하고 마음 넓은
그리고 끈대스럽지 않게 해맑은 어른이를 꿈꾸는
다사리1+1.5 김가화

김진아 ~~~ ‘다사리문화학교는 다 같이 하는 물질이다’
다사리문화학교를 시작할 당시에 졸업 뒤에
무얼 할 수 있을지 몰라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대, 생활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배우고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린지 ~~~ 안녕하세요. 1기 오린지물(1기에서는 학생은물.
선생님들은샘이라했어요~)입니다. 현재는 경기상상캠퍼스
청년동207호에 입주하고 있는 사만키로미터 오린지입니다.
이 곳에는 다사리1기 출신이 저 말고도 3명 더 있어요.
(노부부같은사이예요...) 사만키로미터 팀원 진아,
미랑단에 미랑군, 티들랜드의 우진오빠 모두 다사리에서 만나

다사리와 다사리 이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사리는 지금 제가 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을 만난 곳 이었습니다.

윤혁준 ~~~ 다사리는 나를 행동으로 이끌었다.
최고의 배움터 다사리!

이연순 ~~~ 다사리 문화기획학교 물님들과의 1년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용규 ~~~ 저에게 다사리는 일상을 우리가 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시점에서 세상과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과정 이었습니다.

김설경 ~~~ 지난 문화기획자로 다사리학교에서의 추억은
중년의 나이도 잊고 청춘의 열정을 다시금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애 ~~~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곳’입니다.

김연지 ~~~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저에게 문화기획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꿈만 같았는데 일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문화기획자로
사고를 넓히게 해준 곳 이고 지금 기획사업이나 연구보조
하면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곳 같아요~:)

박지현 ~~~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수료생 한 줄 후기

신성은 ~~~ 자기언어를 찾고 자기언어를 표현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해준 다사리.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져준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또한 기획은 늘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행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그래서 다사리는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과정이다.

강다영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나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준 다사리 감사합니다^^

김솔 ~~~ 문화기획자로서 어떤 태도,자세로 기획을 해야 하는 지 배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현지 ~~~ 많은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문화기획에 대해 배우면서 혼자보다는 같이 사는 삶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승연 ~~~ 문화기획의 이론을 배우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사리에만 집중했다면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았을 텐데 내 욕심으로 이것저것 일을 벌려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박지수 ~~~ 일을 안하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던 저에게 엄청난 해방감과 즐거움과 고뇌(?)를 주었습니다.

다사리와 다사리 이후

서로에게 말 한마디로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안해도 괜찮다, 즐겁게 지내면 괜찮다, 하고 싶은 걸 하면
괜찮다를 이 곳을 통해 수 없이 다독여왔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에게
여러 감정을 함께 느낀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안에는
새로운 언어들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마음을, 이 시간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도희 ~~~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정말 저에게는 많은 걸 바꾸게 해 준
학교였습니다. 상반기 단 몇 번의 강의 시간만으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예술에 대한 편견, 판단을
뒤엎어버렸죠.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히 가지고 있어요.
기획 참여를 제대로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했던
8개월이었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슬 ~~~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수원에서 뭔가를 해부렸다.....!
앞으로 뭔가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정의준 ~~~ 다사리 문화학교는 내가 빨간색이었던 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기획과
예술을 만나다보니 색이 혼합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난 검정색깔문화기획 혹은 도시를
재생학습자라고 칭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다음기수에는 내 지인 2명이 참가한다.
일단 2명은 섭외하고 시작하니 월식교장쌤에게 칭찬받겠다.
기분 좋다

수료생 한 줄 후기

정하원 ~~~ 다사리를 통해 다 같이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ㅎㅎ
p.s. 저희 팀원 재춘, 지수, 조은, 도희, 술가, 선우에게
사랑을 바칩니다.♡3♡

조송현 ~~~ 문화를 이해하는 저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윤정 ~~~ 육아와 가사에 찌든 엄마는 영혼을 살찌우고,
아기 선우는 이모와 삼촌들의 사랑에 살이 찌는 곳, 다사리.

































































